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90.14	↓ 코스닥	891.45
	(+33.97)		(-0.46)
↓ 금리 (미국 9년)	3.371	환율 (원-달러)	1339.80
	(-0.012)		(0.00)

故 정주영 23주기  
미래 동력 '도전정신'  
3세로 잇는다  
04



##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3E' 경쟁 업계 최초 12단 적층 VS 세계 첫 대규모 양산

### 엔비디아 추최 'GTC2024'

엔비디아(NVIDIA) 주최 GTC 2024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고객사 확보를 위한 신기술 전쟁터가 됐다.

20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는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GTC2024에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HBM 경쟁에 임하고 있다. GTC는 전세계 HBM 고객사들과 반도체 기업이 만나는 현 최대 규모 컨퍼런스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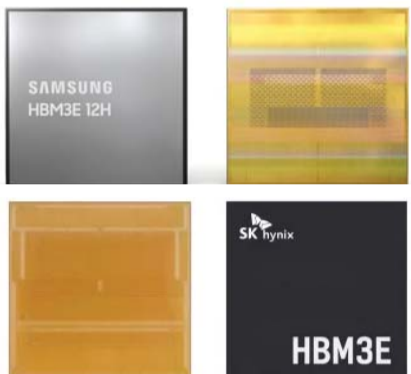
HBM3E 실물을 공개한 삼성전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깜짝 발언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젠슨 황은 이날 기자들과의 Q&A 세션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HBM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HBM3E를)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검증단계(qualifying)에 있다"고 답하며 추후 납품 가능성을 내비쳤다.

### 삼성, HBM3E 12H D램 첫 공개 업계 최대 용량인 36GB 구현

### SK하이닉스, HBM3E 8H 개발 이달 대규모 양산·고객사에 납품 엔비디아 CEO, 韓 파트너십 기대

처음 실물이 공개된 HBM3E 12H는 업계 최초로 D램을 12단으로 쌓은 모델로 수직 연결한 D램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다. 24Gb(기가바이트) D램 칩을 실리온 관통전극(TSV) 기술로 12단까지 적층해 업계 최대 용량인 36GB HBM3E 12H를 구현했다. 초당 최대 1280GB의 대역폭과 현존 최대 용량인 36GB를 제공해 성능과 용량 모두 HBM3(4세대 HBM) 8H(8단 적층) 대비 50% 이상 개선했다. SK하이닉스와는 달리 Advanced TC NCF(열압착 비전도성 접착필름 기술)로 이전 모델인 8H 제품과 동일한 높이를 구현했다.

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 기획실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의 고용량 솔루션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HBM 고단 적층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삼성의 세계 최초 HBM3E D램 12단 적층 HBM(좌)과 이달 대규모 양산과 함께 말경 납품을 시작하는 SK하이닉스의 HBM3E. /각사

등 고용량 HBM 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3E 8H 대규모 양산 및 엔비디아 납품 소식과 함께 'PCB01' 기반 소비자용 SSD를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HBM3E 8H는 대규모 양산을 시작해 이달 말 고객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개발을 일린지 7개월 만이다. 초당 최대 1.18TB(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열 방출 성능은 전 세대 대비 10% 향상했다. HBM의 성능과 경쟁력을 차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액체 형태의 보호재를 공정 사이 주입해 굳히는 Advanced MR-MUF 방식을 채택했다. 극히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AI 메모리의 특성상 발열 제어와 휨 현상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함께 공개한 신제품 'PCB01'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On-Device AI) PC에 탑재하는 PCIe 5세대 SSD다. 올해 상반기 중 PCB01의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대형 고객사용 제품과 일반 소비자용 제품을 함께 출시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기존엔비디아에서 차세대 AI 칩 블랙웰(Blackwell)을 공개한 직후 양산 및 납품 소식을 알린 만큼 4세대 HBM에 이어 엔비디아와의 동맹이 견고함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젠슨 황은 한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생성형 AI로 모든 데이터센터의 DDR램이 HBM으로 교체될 것이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엄청나게"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같은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의대증원 썰기... 지방 82% 경인 17% 서울 '0'

### 교육부, 의대 학생정원 배분 확정 지역거점 국립의대 총 200명 확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8%는 경기·인천지역으로 배치됐다. 서울 지역에는 의대 정원을 신규로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50명 미만 지방 소규모 의대 정원을 100~130명으로 늘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운영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의대 증원에서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학에 361명을 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

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의대는 총 정원이 2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요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 대학은 총 100명 수준이 되도록 배정했다. 지역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 정원 규모를 120명~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 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

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한다. 사립 대학에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용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메트로경제 '100세 플러스 포럼' 성료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익산에 동물 오가노이드 개발 혁신기지 조성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내달 TF 구성 전북도·익산시·전북대 등과 손잡고 글로벌 동물 친화적 도시 '익산' 도약

전라북도 익산에 동물용 오가노이드 개발을 위한 전진 기지가 마련된다. 인체 오가노이드와 마찬가지로 동물용 오가노이드는 반려동물용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 독성 평가는 물론, 동물용 의약품, 재생치료제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급

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동물 오가노이드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분야여서 글로벌을 선도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도 높다.

◆익산, 동물 오가노이드 전진기지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람다바이오릭스 등 기관들과 '동물 오가노이드 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안드레 거스 람다바이오릭스 대표, 정현을 익산시장, 송철규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독일에 본사를 둔 동물대체 시험 전문기업 람다바이오릭스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국민의힘 경기도선대위 출범... 한동훈 지원사격 /사진 뉴스스
- ▲ 민주, 여당에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요구 안 하면 총선 나설 자격 없어"

- ▲ 이종섭 대사 금주 내 귀국... "외교안보 회의 참석"
- ▲ 한동훈 "민주당 국회 장악시, 이재명 재판·구속 기사만 쌓일 것"



- ▲ 이준석 "셀카로봇" 한동훈, 권력욕과 윤석열 사이에서 방향" /사진 뉴스스
- ▲ 송영길 '소나무당' 비례 1번 노영희·2번 변희재·3번 손혜원

#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 기업 자유 보장에 최선”

尹 대통령, 상공인의 날 기념식 강연 최태원·이재용·정의선·구광모 등 기업 대표·유공자 등 1000명 참석

“자유 공존방식 윤리·책임 이행하고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호 최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취임 이후 최초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 앞서 이영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올해 ‘상공인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훈장 14명, 포장 10명, 대통령표창 17명, 총리표창 17명, 장관표창 150명)이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펼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글로벌스타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교육·연금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

적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기업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 자유의 공존방식인 윤리와 책임을 이행해달라”고 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기업, 선도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크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산업 생태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춰 기업들

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도 기업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적극 동참해줄 부탁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 이미지 개선돼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되는 만큼, 상공인의 날을 맞아 자유시장경제의 의미를 함께 새기면서 진정한 자유와 책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뤄내겠다”며 “그 기반이 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를 믿고 마음껏 기업활동을 하고 해외 시장에서 계속 도전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며 “앞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거침없이 세계로 뛰어가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위해 모두 힘차게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중장년 임시직 OECD 1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줘야”

KDI, 1년미만 퇴직금 제도 도입 의견 55~64세 임시직, 男 33% 女 36% OECD 평균은 男 8%, 女 9% 불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이 임시고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이들의 고용 불

안정이 지속되는 데 따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보고서를 냈다.

KDI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55~6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달했다.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넘는 격차를 보였다. OECD 평균은 남자 8.2%, 여자 9.0%에 불과했다.

이들 나이대에서 고임금·고속권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총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자가 32.2%, 25~54세 여자가 43.1%에 그쳤다. 같은 해 OECD 평균(각각 47.2%, 50.3%)에 크게

뒤졌다.

보고서는 국내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장년층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다.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임금이 15.1% 올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11.1%)과 독일(10.3%), 미국(9.6%) 등

주요국 임금 상승률에 크게 앞섰다.

또 정규직 고용보호 탓에 중장년층 정규직 채용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KDI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64세 남자 임금근로 경험자 중 생애주직장 정년퇴직자 비중은 26%에 머물렀다. 64세 여자 임금근로 경험자는 이보다 낮은 7%에 그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2023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최우수 S등급 수상

## 심심함이 살아있는 기장시장으로 오세요!

기장시장은 80년 전통의 재래시장으로서 동해의 청정해역에서 갓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과 현지에서 생산된 청정농산물을 사시사철 만날 수 있습니다.

기장군

# 대한통운 혁신 이끈 베테랑... CJ '글로벌 사업' 키워드 제시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 유통·식품업계 새 얼굴

### 1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전 세계가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경영 환경도 실시간으로 급변한다. 국내 유통·식품업계 기업들은 세계 각지의 원료와 자재 등을 가져와 세계 각지로 판매하는 글로벌 경영을 펼치고 있으며, 이런 전 세계적 실시간 연결시대에 경영자의 판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유통·식품업계 수장으로 새로 취임한 주요 기업 CEO들의 비전과 경영스타일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주요 약력

- 1961년생,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1988 삼성그룹 신입공채 입사
- 1988~2000 CJ제일제당 경영관리
- 2002 CJ제일제당 경영관리팀 팀장
- 2003~2004 CJ주식회사 운영1팀장
- 2005~2009 CJ주식회사 인사팀장(부사장)
- 2010~2011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
- 2012~2013 CJ주식회사 사업1팀장
- 2013~2016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
- 2016~2017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부장
- 2018~2019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부장 대표
- 2020 CJ제일제당 대표이사
- 2020.12~2024.2 CJ대한통운 대표이사
- 2024.2~ CJ제일제당 대표이사(부회장)

CJ는 지난달 CJ제일제당 신임 대표이사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내정했다.

강신호 대표는 1988년 그룹 공채로 입사해 CJ그룹 인사팀장,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부장 등을 거쳤다. 2021년 CJ대한통운 대표를 역임하기 전까지는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냈다. 2021년 정기인사에서 CJ대한통운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 주요 사업부문의 구조를 혁신하고 조직문화를 체질부터 개선해 2023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 4802억원(연결기준)을 달성하는 등 재임 기간 중 대한통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CJ의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인 강 대표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CJ제일

공채 입사... 그룹요직 두루 거쳐 대한통운 최대 영업이익 달성 등 성과 월드 베스트 식품·바이오기업 비전

제당으로 복귀한 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은 2022년(CJ대한통운 제외) 매출액 18조7794억원, 영업이익 1조2682억원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CJ제일제당의 매출은 전년보다 4.7% 감소한 17조8904억원, 영업이익은 35.4% 줄어든 8195억원에 그쳤다.

식품 사업은 성장을 지속했지만 바이오 사업 부문 실적이 급속히 악화된 탓이다. 지난해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1% 줄었고 CJ피드엔지니어는 사업 국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사료 수요 부진으로 864억원의 적자를 기록

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중국의 육류 소비가 급감하면서 라이신 등 사료용 아미노산을 대표하는 그린 바이오 시장이 침체에 빠진 여파다. 바이오 사업 부문의 체질 개선과 함께 본업인 식품 사업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강 대표의 임무인 셈이다.

강신호 대표는 그룹 내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만큼 강 대표의 복귀는 그룹 '소방수'로 투입해 CJ제일제당의 실적 반등을 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특히 강 대표는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CJ그룹에서 공채 출신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것은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 대표는 이

재현 CJ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현실가능한 사업 계획과 목표를 세워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경영자라고 평가받는다.

CJ제일제당 취임 직후 강 대표는 '글로벌 사업'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강 대표는 최근 CEO 인사말을 통해 "CJ제일제당은 국내 종합식품 1위 기업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인 글로벌 사업을 강화해 월드 베스트 식품&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비전을 전했다. 식품과 바이오 사업을 두 축으로 삼아 글로벌 확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비비고 브랜드 사업을 강화하되, 부진한 사업과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편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J대한통운 재임 당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실적 개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유종만 대표, '동물 친화적 도시' 로드맵 공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1면 '익산에 동물...'서 계속

이 기업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에 AF(애니멀-프리) 솔루션을 제공, 다양한 동물대체 시험법을 연구자나 업체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로 알려져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전북자치도가 국내 첨단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은 앞으로 동물 오가노이드 산업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은 세계 최초 동물용 오가노이드 전진 기지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협약식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 동물용 오가노이드 산업의 기반으로, 익산을 글로벌 동물 친화적 도시로 키워낼 수 있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유 대표에 따르면 익산은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큼 동물 친화적인 도시인데다 동물용 의약품 평가 센터,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인수공통 감염병센터, 원광대학교 반려동물관련 학과,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 풍부한 동물 산업 연계 연구 인프라를 갖췄다는 이점이 있다. 또 편리한 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아 동물용 오가노이드 개발의 전진 기지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 ◆동물 오가노이드, 어떻게 활용되나

동물용 오가노이드는 인체 오가노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우선 동물용 사료는 물론 치약, 스프

레이 같은 화장품이나 유산균과 같은 건기식의 독성, 효능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이제까지 이런 동물용 제품은 대부분 인체 실험을 통해서만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미 그라스메디와 함께 반려동물용 치약의 효능, 독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종만 대표는 "사람에 안전하더라도 동물에 어떻게 누적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동물용 오가노이드가 활용되면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용 감염병에 대응하거나 동물용 재생치료제 개발에도 오가노이드가 활용될 수 있다. 개체별로 채취한 중앙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동물용 항암제 진단서비스나 맞춤형 항암제 개발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동물 오가노이드 평가 센터와 연구소, 동물 오가노이드뱅크, 동물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병원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4월 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유 대표는 "동물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산업과 관광, 병원 인프라를 갖춘다면 익산을 중심으로 동물 오가노이드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지 않은 분야라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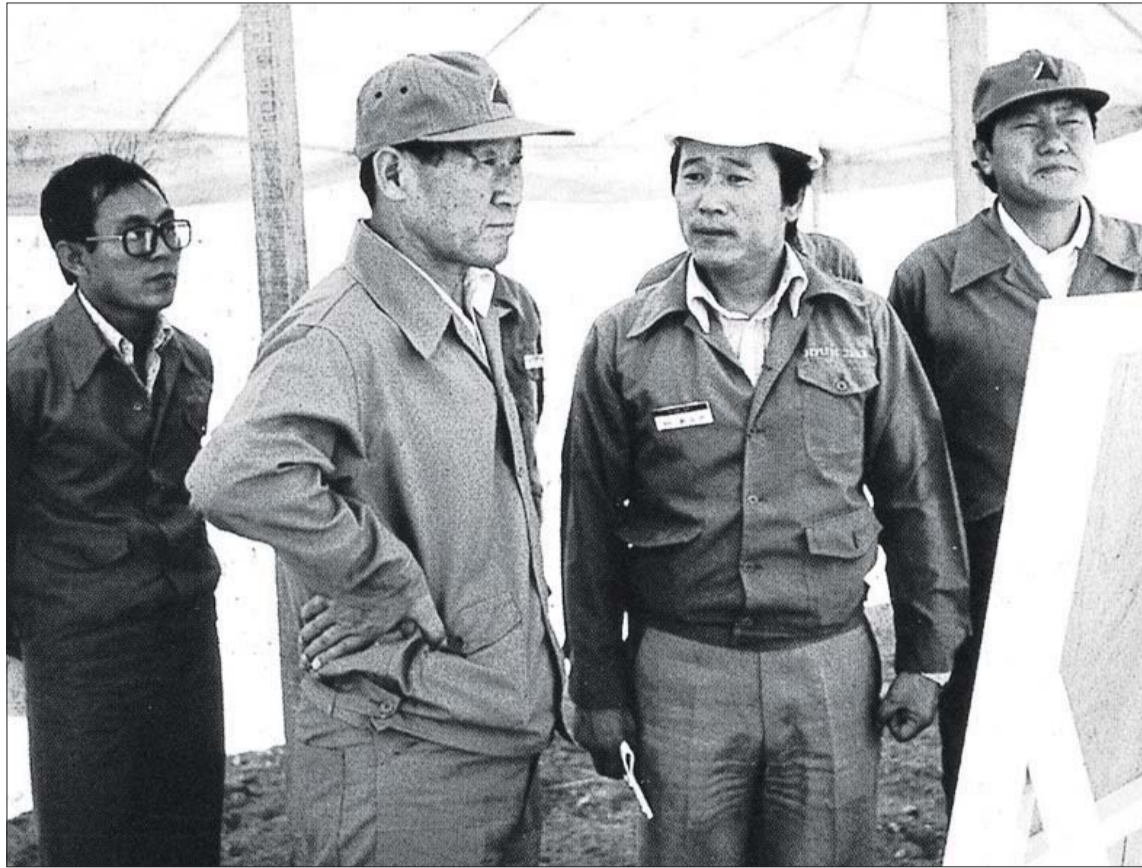
교보생명의 이웃사랑 이야기 '황제펭귄' 편

## 서로를 돕는 따뜻한 이웃사랑 그것이 생명보험의 가치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겨안고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하는  
황제펭귄의 허들링처럼

생명보험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KYOBO 교보생명



정주영 선대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기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HD현대

# 미래성장 핵심 동력 ‘도전 정신’, 정의선·정기선 3세로 잇는다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HD현대 부회장〉

## 정주영 명예회장 타계 23주기

故 정주영 회장, 현대차공업·현대토건 시작 건설·조선·전자 등 韓 최대 기업집단 성장  
정의선 회장, 수소 등 친환경 중심 경쟁력 ↑ 자율주행·로보틱스·UAM 등에 투자 단행  
정기선 부회장, 지난해 HD현대 문패 교체 중공업서 AI·로봇 등 사업영역 확장 속도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한지 23주기(21일)를 맞았다. 세월은 흘러도 여전히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3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정주영 회장의 정신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핵심 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주영 회장은 1946년 세운 현대자동차공업사, 1947년에 세운 현대토건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업인의 길에 걸었다. 1950년 두 회사를 합병해

현대건설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현대자동차, 1973년 현대조선중공업, 1983년 현대전자를 설립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다졌다. 1981년에는 서울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아 5개월 뒤 ‘바덴바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후 현대그룹은 1990년대 건설과 조선, 자동차, 유통, 전자, 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를 망라한 국내 최대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특히 정주영 회장은 산업 뿐만 아니라 대북 사업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주영 회장은 1998년 6월 17일 85세 고령에 소 500마리를 끌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서산 공장에 있던 소를 몰고 갔고 이는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같은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은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흘러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제조업의 변화를 민첩하게 반응하며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 4년차를 맞은 정의선 회장은 수소, 전동화, 미래 모빌리티 등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은 차량 고급화와 고부가가치차 및 전기차 공급 확대 전략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연속 두 번째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판매량 3위를 차지할 수 있던 것도 이같은 도전 덕분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략을 변경하고 있지만 정 회장은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2025년 전략으로 전기·수소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 투자하고 있다. 단순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도 조선·중공업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통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그룹이란 사명 대신, HD현대로 문패를 교체하고 ‘도전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정 부회장은 기존 조선·중공업에서 수소·에너지·인공지능(AI)·로봇 등으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2021년 그룹의 수소 사업 비전인 ‘수소 드림 2030’을 통해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까지 HD현대 전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한 수소밸류체인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투자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2022년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에 대한 투자계약, 세계 최고 빅데이터 기업인 미국 팔란티어와의 MOU 체결 등 사업 영역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2년 현대중공업그룹 AI포럼 개최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새로운 50년에 있어 AI가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AI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이같은 변화에도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정신은 이어가고 있다. 범현대가의 고유 심볼을 교체했지만 판교 사옥 곳곳에 정주영 어록을 새겨넣었다. HD그룹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을 모토로, 아산 서거 10주기에 설립한 아산나눔재단을 통한 창업정신의 강조도 지속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제작결함시정 사전공고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개요  
 - 제조사: 현대자동차 (주) (HJUNO) S11 모델 차량에서 전조등의 광도(자동차 안전기준 제 75 조), 차폭등의 색도(자동차 안전기준 제 77 조의 2, 방향지시등의 광도(자동차 안전기준 제 79 조)가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2. 결함 대상 및 대상 기간

차명	형식	제작 기간	대상 대수		
			판매	미판매	계
주노(HJUNO)	S11	2020.06.22~2021.02.04	352대	256대	608대

3. 제작결함 내용  
 - 결함: 결함 있는 구조 장치: 등화장치 / 전조등, 차폭등, 방향지시등  
 - 원인: 전조등의 광도, 차폭등의 색도, 방향지시등의 광도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4. 제작결함 미시정 사항  
 - 전조등: 야간 주행 중 시야 확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차폭등: 차량의 외관인지 지향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방향지시등: 좌·우 회전 시 상대 주행차 및 보행자로 하여금 인지 지향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5. 결함 시정기간, 장소 및 문의처  
 - 시정기간: 미정(개선통 확보 후 시정조치 개시 예정)  
 - 시정장소: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 시정관련 문의처: 고객센터(010-2385-5007)  
 - 시정방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

6.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2 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하여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보상 대상기간: 2021.03.11 부터  
 - 보상 신청장소: 현대자동차 고객센터(010-2385-5007)  
 - 보상신청 연락처: 고객센터(010-2385-5007)  
 -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사항을 하시면,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제작결함 시정 비용부담 방법: 대상차량 1대당 무상수리

OTOS  
 경기도 안성시 동안구 읍내로 415, 두산벤처대입 523 호 TEL: 031-478-3225/FAX: 0505-265-4582

## “주주가치 제고위해 9.8조 배당... 신사업 발굴 강화”

삼성전자,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한총희 대표 “AI·고객경험·ESG혁신 등 신제품·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조기 발굴”

삼성전자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올해부터 신사업 발굴을 주력하고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배당 계획도 전했다. 한총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20일 오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AI(인공지능), 고객 경험, ESG 혁신을 이어가고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9조 8000억 배당 지급 한총희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3년은 고급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업황 둔화로 경영 여건이 어려웠다”면서 “연간 실적은 매출 258조9000억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과 선제적 시설을 확대하는 등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 속에 2023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 914억 달러로 글로벌 톱5의 위상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날 정기 주주총에는 60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삼성전자의 총 주주 총수는 467만2130명이다. 한 부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3년 기준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바이스솔루션(DX) 부문장인 한 부회장은 삼성 디바이스를 인공지능(AI)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스마트폰 등 갤럭시 전제품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일반 가전제품을 지능형 홈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전사적 AI 역량을 높여 차세대 전장 로봇, 디지털 헬스 등 신사업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사업 주력, “반도체 세계 1위 되찾을 것”  
 경계한 삼성전자 사장은 올해 반도체(DS)부문의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경 사장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63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DS부문의 매출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본격 회복과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2~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메모리는 12나노급 32Gb(기가비트) DDR5 D램을 활용한 128Gb(기가비트) 대용량 모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12단 적층HBM 선형을 통해 HBM3·HBM3E 시장의 주도권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경 사장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선단 공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 최초 GAA(게이트올라운드) 3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을 시작하고 2025년 GAA 2나노 선단 공정의 양산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세상을 바꾸는 금융

# 1학년이 된 아들에게

늦은 나이에 너를 만났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빠 너를 통해 배웠어

그런 너를 바쁜 엄마 아빠 때문에  
아침 일찍 보내고 해질 무렵에 하고 시키는 요즘  
아빠는 마음이 참 무거운데

“아빠 얼른 가! 학교 진짜 재밌어~”

씩씩하게 웃는 네 모습을 보면  
먹고사는 게 뭐라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날들이 다 추억이 되겠지?

그 시간이 언제든 아빠는 언제나 널 위해  
여기 있을 거다, 등굣길에 잡았던 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네 곁에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늘 봄 같은 우리 아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드는 '돌봄 공백 없는 세상'

KB금융그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지원하여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25개의 거점형 돌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4년간 지역구 민심 다진 나경원 vs ‘검찰 잡는 경찰’ 류삼영

## 22대 총선 격전지

### 서울 동작을

다양한 특색에 지역마다 성향 달라 후보 인지도·역량 등 개인기 고려  
나, 높은 인지도로 지역밀착 강조 류, 유권자에 이름 알리기 ‘총력’ 최근 여론조사서 격차 0.4%p 불과

1987년 민주화 이후 9번의 총선에서 보수정당 4차례, 진보정당이 5차례 이긴 지역이 있다. 서울 동작을이다. 동작을은 동작구 동쪽을 관할하며, 흑석뉴타운,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이수역, 사당역 등이 이곳에 속한다.

거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살던 상도1동도 선거구에 속하는 등 다양한 특색의 동네를 끼고 있는 만큼 성향도 다 다르다.

흑석동의 경우 고가 대형평수 중심의 뉴타운 개발이 진행돼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지만, 사당2·3동은 기본적으로 스윙보터(부동층) 성향을 갖고 있으며, 사당 1·4·5동은 진보정당에 표를 더 던져주는 지역이다. YS가 거주하던 곳으로 유명한 상도 1동은 스윙보터면서도 민주당이 경합우세에 가까운 편으로 평가되는 등 지역마다 색채가 조금씩 다르다.

또 13대 국회부터 따져보면, 해당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이들은 찾기 힘들다. 민주당 이전부터 정치활동을 해온 박실 전 의원(12~14대)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만큼 한 정치인의 독주를 오래 두고 보지 않는 지역이라는 의미도 된다.

이에, 전반적으로 서울 동작을은 ‘한강벨트’ 중 손꼽히는 스윙보터(부동층)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거기다 민주당계 정당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보수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시민들에 인사하고 있다.

보가 당선되는 등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지도나 역량 등 개인기를 많이 고려하는 곳이기도 하다.

###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공중전’으로 나경원 꺾어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현역이 자원내대표까지 역임한 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판사 출신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다. 이수진 후보 측은 ‘반(反) 나경원’ 표심을 자극해 7.12%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당시 민주당은 나경원 전 의원의 이미지가 소모된 점을 고려해, 선거를 ‘공중전’으로 가져왔다. 선거 한달 전 전략공천된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재선을 지낸 나 전 의원을 이기려면, ‘지상전’으로는 불리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22대 총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경우 현역의원은 탈당했고, 영입인재로 들어온 류삼영 전 총경이 전략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은 4년간 지역을 닦아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웬만한 후보로는 이기

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 ◆4년전 패배 설욕 나선 나경원, 인지도·연고에서 앞서

동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는 나경원 전 의원이다. 나 전 의원은 4년 전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다시 출마 선언을 했다. 지역구 민심을 오래 다져왔기 때문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나 전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주는 등 무난한 결정을 했다.

나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을 받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19일 공천자대회에서 “우리는 민심의 바다 속으로 풍덩 들어가야 한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서 더 낮은 자세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동작을 지역에서 활동해온 만큼, 나 전 의원은 ‘높은 인지도’와 ‘지역을 잘 아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년 전 ‘공중전’으로 패배를 맛본 만큼, 최대한 지역 밀착형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모양새다. 총선 공약도 지역민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교통·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류삼영 후보 지지 유세를 하며 류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뉴시스

육 분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 때문인지 3월 초만 하더라도 지역 연고가 없는 민주당 후보에 비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섰다. 다만 ‘정권심판’ 바람이 불 경우 지상전만으로 승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 ◆‘검찰 잡는 경찰’ 표방 류삼영, 낮은 인지도에도 맹추격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동작을을 두고 고민이 깊었다. 해당 지역 현역의원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결국 해당 지역을 전략지역구로 선정했고, 3월 1일에 전략공천으로 류삼영 전 총경을 동작을로 보냈다.

류삼영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방침에 반발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같은 이력을 고려해 류 후보를 ‘3호 인재’로 영입했다. 류 후보 역시 스스로를 ‘정권에 맞선 투사’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까지 지낸 전직 4선 의원에 비해 낮은 인지도와 약한 지역 연고는 그에게 숙제다.

이를 의식했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과 13일 연이어 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동작을 방문했다. 류 후보도 ‘검찰 잡는 경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최근 각종 방송을 출연하고 지역을 도는 등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류 후보는 처음 공천을 받았을 당시에는 여론조사는 상대 후보에게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리서치뷰(KBC·UPI 의뢰, 16~17일 조사)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 후보는 46.3%, 류삼영 후보 45.9%로, 후보간 격차는 0.4%p에 불과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 심판’ 바람이 불면 동작을의 선거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조사 방식은 가상번호 ARS 휴대전화조사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1시간 일해도 사과 한알 못 사... 이런 이상한 나라 바뀌어야”

## Q 르포

### 이재명, 인천 동·미추홀구 방문

與 윤상현 후보, 내리 4선한 협치 박찬대·남영희 후보 지원 유세 대파·애호박·빵으로 시민들과 교감

시장 부지에 토지금고가 있었다고 해 이름 붙여진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타났다. 토지금고시장을 품은 인천 동·미추홀구들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리 4선을 해 민주당에는 힘지로 꼽히는 곳이다. 인천 동·미추홀구들은 윤 의원이 여러 사정에 최근 2번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어도 윤 의원에겐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낸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도 동·미추홀구들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는 남영희 전 민주당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해 ‘리턴 매치’를 성사시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백중세가 예측되는 이번 총선, 특히 민주당에게 어려운 곳으로 꼽히는 동·미추홀구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을 방문해 야채 가게 사장님에게 대파 한단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다.

이 대표가 상인과 지지자와 만나기로 한 토지금고시장은 이 대표 도착 10분 전부터 들쭉날쭉했다. 남영희 후보는 일찍부터 시장 앞에서 상인들과 만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분위기를 돋우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장 초입에 가게

의 주인들은 “아따 참말로 장사해야 하는데 이게 뭐여”, “민생 책임지는 사람들이 남의 가게를 가로막고 있어도 되는가”라며 푸념했다.

작업복을 입고 이 대표를 기다리던 안덕진씨는 “민주당 당원만 30년째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똑똑해서 지금처럼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내재됐던 것이 이제 폭발할 것”이라며 “윤상현 의원은 지역에서 4번 했으면 할만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지자로 보이는 사장님은 지지자들에게 대파 한 단과 애호박 한 개씩을 빌려주면서 “1번”을 연호했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할인된 대파 한 단 가격 875원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바 있지만, 사장님이 빌려주는 대파 한 단의 가격은 3500원이었다.

또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겹과 속이 다르다면서 ‘수박’이라고 부르는데, 이날 지지자들은 겹과 속이 그나마 비슷한 애호박

을 들고 이 대표를 기다렸다.

다른 지지자들은 바게트 빵 모형을 높게 쳐들고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빵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비례대표 투표 때문인데,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고 돌풍을 일으키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물빵(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는 더불어민주당연합)’론을 펼치고 있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이 대표가 등장했다. 이 대표는 인천 연수구갑에 출마하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남영희 후보를 양 옆에 세우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1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임금으로) 1만원을 못 받는데, 그 돈으로 사과 한알을 못 산다. 이런 이상한 나라를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과 남 후보를 치켜세우며 4월10일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장시간 연설을 마친 이 대표가 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 대표에게 대파를 주려고 한참을 기다렸던 야채가게 사장님은 이 대표가 자신을 못 보고 지나치

자간 대파 한단을 흔들며 이 대표를 불렀다. 이 대표는 곧 허공에서 흔들리는 대파를 발견하고 이내 받아들었다. 대파를 이리저리 만지던 이 대표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시장 중심부로 진출했다. 야채가게 옆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스케치북을 준비해와서 사인 받기를 기다렸는데, 이 대표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전날 강원도와 경기도를 순회한 이 대표는 이날 인천을 방문하며 수도권 승리의 힘을 보냈다. 이 대표도 인천 계양구에 출마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대결하는 등 인천은 21대 총선보다 선거구가 1개 늘어 총 14개 선거구에서 총선을 치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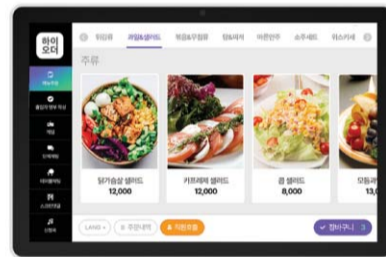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민주당을 찍자는 의미인 ‘빵’을 들고 이재명 대표를 쫓아가고 있다. /박태홍 기자

kt



“ 주문접수도 결제도 대신 받아주고 맛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매장 경쟁력이 더욱 올라가더군요 ”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KT



## 하이오더

- ✓ 회전율 개선 · 운영비 절감
- ✓ 다양한 결제수단 · 외국어 지원
- ✓ 안정적인 네트워크 · 전국 직영 A/S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편리해요 ”

# 예금금리 4%대 사라진다... 실적악화 은행, 채권에 눈돌려

저축은행 79곳 평균금리 연 3.72% 수익성 악화로 공격적 조달 지양 채권시장 진정에 은행채 발행 이득 하반기 금리상단 3%대로 하락 전망

이르면 상반기 중 연 4%대의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실적 급감에 시달리는 저축은행의 우선 과제로 비용절감이 손꼽히는 만큼 공격적인 조달을 지양하면서, 은행권도 채권시장 진정세에 정기예금 금리를 연이어 낮추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 금리는 연 3.72%다. 연초(3.96%) 대비 0.24%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회전식정기예금을 제외한 예금금리 상단은 0.30%p 떨어졌다. NH·HB·대백저축은행 등 6곳이 연 4.0%를 지급한다.

은행권도 정기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은행권에서 기본금



저축은행의 우선 과제로 비용절감이 손꼽히는 만큼 이르면 상반기 연 4%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다. 1년물 정기예금 금리를 연 3.72%로 책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계 및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연 4.4%대 정기예금을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조달 기조를 앞세운 것과 비교하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금융권이 수신금리를 낮추는 배경에는 채권시장 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은행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정기예금 대비 저렴하다는 셈법에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은행채(AAA, 3년물) 금리는 연 3.69%다. 지난해 10월(연 4.65%) 대비 0.96%p 하락(채권값 상승)했다. 반년간 꾸준히 채권금리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고금리 정기예금이 사라진 것.

은행권이 정기예금 금리를 낮추자, 저축은행도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대출 규모가 10조원 넘게 쪼그라든 만큼 최소한의 조달 경쟁력만 갖추겠다는 포석이다.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이자비용이 지목되는 만큼 긴축 경영도 요구된다.

하반기에는 정기예금 금리 상단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도 저축은행 여수신이 반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104조2626억원이다. 전월(107조1491억원) 대비 2조8865억원 감소했다. 이어 여신잔액은 103조2171억원으로 한 달 사이 8765억원 줄었다.

단, 정기적금은 올해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목돈을 예치하는 예금상품 대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은 정기적금을 사회초년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 업계에서는 적금으로 조달하는 자금이 전체 수신잔액의 10% 미만일 것으로 추산한다. 수신 비중이 낮은 만큼 고금리를 적용할 여력이 충분한 것.

실제로 현재 저축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하나저축은행의 '잘과 정기적금'이다.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5%에 가입 일자 기준 만 12세 이하의 본인 또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p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적금은 작은 돈이라도 아끼고 모으는 데 의미가 있는 상품이다. 주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을 모객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i119@metroseoul.co.kr

## 고금리에 정책서민금융 연체율 1년새 2배 ↑

'햇살론15' 연체·대위변제 최다 지난해 총 연체금액의 60% 차지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1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연체액을 대신 갚는 비율)도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취약성 악화에 공공 지원도 함께 늘고 있는 것.

20일 양정숙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8년~2023년)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액 19조9171억원 중 1조9922억원(10%)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연체 및 대위변제율이 2022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 및 대위변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21.3%의 연체율을 기록한 '햇살론15'다. 같은 기간 연체액도 1조1190억원에 달해 지난해 총 연체 금액의 60%를 차지했다.

'햇살론15'는 은행이 저소득층 및 신용점수 하위 20%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400만원(2022년~2023년 2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하에 대출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같은 기간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뱅크'의 연체율도 1년새 1.1%에서 8.4%로 7배 넘게 치솟았고,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의 연체율도 4.8%에서 9.4%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금융권에서는 연체율 상승이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제2금융권·제3금융권 대출 공급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1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37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제2금융권 대출액은 27조원 줄었다. 제3금융권 대출 잔액도 지난해 6월 기준 14조6000억원을 기록해 2022년 말 15조9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제2금융권 및 제3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고위험 대출 수요가 몰려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것.

실제로 최근 6년간 95%가 넘는 대출 승인율을 기록한 3개 상품(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모두 지난해 연체 및 대위변제율이 10%를 상회(햇살론15 21.3%, 최저신용자특례보증 14.5%, 소액생계비대출 1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과도한 금리가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년간 공급된 햇살론15의 평균 공급 금리는 연 17.1%에 달한다. 지난 2023년 상반기 대부업권 평균 대출금리인 13.6%를 크게 상회한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도 각각 15.9%, 14.5%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연체율이 0.80%에 그친 정책금융상품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연 10.5%다.

햇살론15는 성실 상환 시 매년 1.5%(5년 만기)~3.0%(3년 만기)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제공하지만, 대출만기가 3~5년에 불과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불가능해 실제 체감 금리는 여전히 높다.

양정숙 의원은 "햇살론15는 대부업·법륜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라며 "그런데도 평균 대출금리가 17.1%인 것은 정부가 정부의 역할보다는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ABL생명, 고령화시대 간병비 경감 보험

(무)ABL THE케어간병보험 진단비·간병비 등 폭넓게 보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도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간병비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기준 간병도우미료는 1년 전보다 11.4% 상승했다. 간병인을 둘 경우 매달 4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ABL생명은 올해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 경증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 진단비와 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장기요양등급 단계별 보장은 물론 선택 특약 가입 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기본형 대비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한다.

중증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특약 가입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최대 1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추가로 보장받는다.

해당 특약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1~



ABL생명에서 올해 출시한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경증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 진단비와 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ABL생명

5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재가급여지원금, 시설급여지원금, 주·야간보호지원금을 지급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 항목별로 월 1회 한도로 보장한다. 경증 이상이면 매월 최대 100만원씩 최대 10년동안 지급되고 중증의 경우 보장기간을 확대해 최대 100만원씩 종신토록 보장받는다.

은재경 ABL생명 영업채널담당임원은 "인구 구조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며 "(무)ABL THE케어간병보험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간병 보장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 벤츠 등 안전기준 미흡 車 판매사 '과징금'

국도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와, 한국도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과징금은 작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치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은행-성동구, '땡겨요' 서비스 시작

신한은행이 서울시 성동구청과 제휴를 맺고 '성동 땡겨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통해 가맹점에게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이용금액의 1.5%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땡겨요와 제휴를 맺은

곳은 서울특별시 6개구(광진·구로·용산·서초·은평·성동구)와 충청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이 있다.

신한은행과 성동구청은 '성동 땡겨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성동 공공 배달앱 상품권'을 19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디젤 앞지른 LPG車... QM6 등 SUV 라인업 관심 집중

전년비 연료별 판매량 138% '경중' 유지비·친환경·세계혜택 등 주요 중형 SUV 시장선 QM6 LPe 유일



QM6 2.0 LPe

/르노자동차코리아

LPG 자동차가 탄소중립과 고유가 시대와 맞물리면서 다시 한 번 조명 받고 있다.

LPG 자동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으며 액화된 석유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기존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여기에 최근 가솔린과 디젤 가격이 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준다.

2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등록 대수 보면 LPG 자동차 판매가 부쩍 증가한 걸 알 수 있다. LPG 자동차가 1만1730대 팔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디젤차(1만1523대)를 앞질렀다. 1년 전 연료별 판매량을 봐도 증가한 연료는 하이브리드(39.4%)와 LPG(137.7%)뿐이다. 가솔린과 디젤, 전기

차는 모두 감소했다.

이는 올해 초부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가솔린과 디젤 가격이 상승한 영향도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15일 현재 가솔린 전국 평균 가격은 1638.48 원이고 서울 평균은 1714.55원이다. 반면 LPG 가격은 4개월 연속 큰 변화 없이 970원을 유지하고 있다. 가솔린과 LPG 가격이 차이가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LPG 자동차에 관심이 높아지기 마

련이다.

여기에 LPG 차량의 친환경성도 소비 상승을 이끌고 있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같은 경유 차량 대비 9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배출한다. 덕분에 전국 공영주차장(30~50%)과 공항 주차장(20~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LPG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서둘러

LPG 모델을 추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SUV 시장에선 LPG 모델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중형 SUV 시장에선 르노코리아 QM6 2.0 LPe가 유일하다.

르노코리아 QM6 판매량을 봐도 LPG 모델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QM6는 2.0L 가솔린과 2.0L LPG 두 개의 파워트레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QM6 판매량의 70% 이상이 LPG 모델일 정도로 많이 팔린다. QM6 LPG는 최고출력 140마력, 최대토크 19.7kg·m를 낸다. 가솔린 모델(144마력, 20.4kg·m)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다.

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LPG 연료 특성상 연비(8.9km/L)가 가솔린 모델(12.0km/L)에 비해 낮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연료비가 낮아 가솔린 모델에 비해 연간 2만 km를 달린다고 가정하면 약 70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

LPG는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것

도 장점이다. 정부도 디젤 대신 LPG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에 차량용 LPG 관세를 3%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QM6가 소비자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국내에서 특허 받은 도넛 탱크 마운팅 기술로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기존 트렁크에 있던 LPG 탱크를 트렁크 바닥 스페어타이어 공간으로 옮겼는데, 탱크를 차체 바닥이 아닌 사이드 빔에 고정했다. LPG 탱크가 차체에서 떨어져 있으니 주행 중 발생하는 충격도 줄이고, 뒤에서 발생하는 추돌 사고 시에도 훨씬 안전하다. 또한 탱크가 차체와 닿으면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을 줄였고, 연료펌프 소음의 실내 유입도 막을 수 있었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QM6 24만 대 판매를 기념해 3월 내에 QM6를 출고하는 고객 240명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 신세계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한화에어로, 2032년 달 착륙선 보낸다

차세대발사체 사업 협상대상 선정 '사명감·책임감 가지고 역량 집중'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 위치한 누리호 엔진 조립동 전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함께 누리호(KSLV-II)의 뒤를 잇는 차세대발사체(KSLV-III)에 개발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에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2일 진행된 '기술능력 적합성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항우연과 최종 협상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달 착륙선 등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의 주요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가우주계

획의 핵심 사업이다. 민간 기업이 항우연과 함께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본격적인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차세대발사체는 대형위성 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 대비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개발된다. 총 3차례 발사

를 통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도전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99년 과학관측로켓(KSR-III) 개발을 시작으로 26년간 축적한 엔진 기술력과 누리호 고도화사업을 통해 획득한 중대형 발사체 제작 역량을 갖췄다. 이번 차세대 발사체 사업으로 확보한 기술과 경험으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사업은 어렵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국내 참여 기업들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응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최운호 사장 "전고체 전지, 2027년 양산"

(삼성SDI)

삼성SDI, 정기 주주총회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 배당



제1호의안 '제5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승인이

진행됐다.

배당액은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으로 결정됐다.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내이사로 김중성 삼성SDI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재선임하고, 박진 삼성SDI 중대형전지사업부장(부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억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삼성SDI는 주주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주총회 현장에 별도의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사업부문별 핵심 제품을 전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STX

#### 월드와이드챔피언 SPA 체결

'트롤리고' 기반 인도시장 공략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트롤리고'를 기반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STX는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 시장에서 원자재 거래 경험이 많은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 '월드와이드챔피언'과 STX 아시아의 지분 100%를 매각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STX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파트너사와 함께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트롤리고 영향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LG화학, PEC 적용 화장품 용기 공개

(폴리 에틸렌 카보네이트)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4' 참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고객 확보

LG화학이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시장 개척에 나선다.

LG화학은 오는 21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하는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4 (Cosmoprof Bologna 2024)'에서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전시해 고객 확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는 뷰티 산업의 소재, 패키지, ODM, 브랜드 등 약 3000여개의 코스메틱 회사가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 뷰티 산업 박람회다.

LG화학은 친환경 파트너사인 코스맥스의 예코존에서 이산화탄소로 만든 차세대 친환경 소재인 'PEC(폴리 에틸렌 카보네이트, Poly Ethylene Carbo



LG화학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PEC(Poly Ethylene Carbonate)

/LG화학

nate)'를 적용한 화장품 용기를 첫 선보인다.

PEC는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사용해 만드는 차세대 친환경 혁신 플라스틱이다. 주로 화장품 용기와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며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섞어서 부드러운 필름부터 단단한 케이스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 현대로템, 도시철도·수소 에너지 역량 뽐내

대만 스마트시티 서밋&엑스포 참가

현대로템이 대만 스마트시티박람회 에서 도시철도 사업 경쟁력과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력을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20일 대만 타이페이 및 가오슝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 시티 서밋 &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각 도시별로 주제와 기간을 나눠서 개최된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돼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타이페이 행사는 교통, 물류, 도시 등이 주제이며 가오슝 행사에서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스마트 교통,

탄소중립 등의 주제를 다룬다.

현대로템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만 시장에 '도시철도 차량 및 시스템의 강자'이자 '미래 수소 에너지의 선두주자'로서 확보하고 있는 사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각 도시별 박람회 주제에 맞춰 타이페이에서는 도시철도 사업을, 가오슝에서는 미래 수소 사업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당사의 도시철도 사업 경쟁력은 물론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 역량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지난해 IT산업 수장들 20억 받았다 직군·경력 따라 임직원 연봉도 '억'

유영상 SKT 대표, 20억6500만원 연봉 외에도 PSU 2만5380주 받아  
이해진 네이버 GIO, 19억3600만원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기여 등 결정”  
조주완 LG전자 사장, 23억4100만원  
전년도 대비 5억6000만원 늘어나



SKT 유영상 대표. /SKT



이해진 네이버 GIO. /뉴스시스



조주완 LG전자 사장.

지난해 정보통신산업(ICT) 기업 등 산업계 수장들의 연봉이 2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이나 경력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다르지만 임직원들의 연봉도 모두 '억' 소리가 난다.

업계별로 보면 통신사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0억이 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SK텔레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유영상 대표는 지난해 급여 12억원, 상여 8억36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900만원 등 총 20억65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유대표는 연봉 외에도 성과연동형주식(PSTU)을 2만5380주 받았다. 이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유대표의 지난해 연봉은 전년(21억3700만원)보다 3.4% 줄어든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급여는 1억원 늘었지만, 상여가 1억8800만원 줄었다. 이통3사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통신시장 둔화 영향으로 상여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내이사인 강종렬 ICT인프라담당 사장 연봉은 2배 이상 뛰었다. 강 사장은 급여 7억원, 상여 5억2500만원, 기타 근로소득 500만원 등 총 12억3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급여만 5억1900만원을 받았는데 같은 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관련한 상여를 받은 것.

SKT 측은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산하 미래전략위원회·ESG위원회에 참여해 경영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SKT 2.0 거버넌스 추진에 기여했다”며 “최고안전보안책임자(CSPO)이자 ICT인프라 총괄 임원으로서

인프라안전운용, 5G·테크(Tech)·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KT 직원 평균 급여는 전년(1억4500만원)보다 4.8% 증가한 1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액은 1억6300만원, 여성은 1억900만원이다.

IT 업계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억에 가까운 보수를 수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지난해 급여, 상여, 기타근로소득을 포함해 총 19억3600만 원을 수령했다. 회사 측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글로벌 투자 업무에 주력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보수를 많이 받은 직원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로 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을 포함해 총 13억49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2022년 도달한 영업수익 8조 2200억 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1조 8000억 원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최 대표는 네이버 주가 부진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는 12억3500만원, 이견수 네이버 사내독립기업(CIC) 대표가 12억5900만원, 이윤숙 CIC 대표는 12억1600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 네이버 직원들은 1인당

평균 1억19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말 일 기준으로 네이버 임직원 수는 총 4383명이다.

이밖에도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지난해 23억4100만원의 보수총액을 받았다. 전년 보다 5억6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LG전자가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사장은 급여 15억6100만 원, 상여 7억8000만 원 등 총 23억4100만 원을 받았다.

류재철 사장은 급여 12억5400만원, 상여 3억200만 원 등 총 15억56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상규 전 사장은 퇴직금 28억9300만 원을 포함해 37억9200만 원을 받았다. 이정수 전 전무와 김영수 전 전무는 각각 17억8600만원, 15억4300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LG전자 직원 1명의 평균 급여액은 1억600만원으로 2년 연속 1억원을 넘었다. 삼성전자의 평균 급여를 바짝 뒤쫓고 있다. 다만 이는 전년도 평균 급여액(1억1200만원)보다는 600만원 낮은 수준으로, 연초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ICT 임직원들의 몸값이 오르는 데는 산업계가 인공지능(AI)과 ICT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몰두하고 있어서다. 최근 애플도 거대언어모델(LLM) 및 생성형 AI 직군 기본급은 최대 25만6000달러(약 3억4000만원)를 제시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SKT, AI 기반 B2B 사업 확대 속도

AI CCaaS·AI 카피라이터 등 출시

SKT가 다양한 B2B(기업 간 거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기업 고객도 다수 확보하는 등 AI 기반 B2B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SK텔레콤은 올인원(All-in-One) 구독형 AI 컨택센터(AICC) 서비스인 'SKT AI CCaaS', 광고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카피라이터'를 각각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SKT AI CCaaS(Contact Center as a Service)'는 콜 인프라(Call Infra)부터 상담 담 어플리케이션(앱), AI 솔루션, 전용회선, 상담인력, 시스템 운영대행 등 AICC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과 솔루션을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구축형(On-Premise)과 달리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 기반 월정액 구독형 상품으로, 중소기업도 낮은 비용으로 AICC를 도입할 수 있다. 기업고객은 필요한 챗봇과 같은 AICC 솔루션만 선택하거나, 상담앱 등 일부 기능을 우선



SKT 직원들이 AI 컨택센터 서비스 'SKT AI CCaaS'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SKT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AICC를 구축할 수 있다.

AICC는 기존 컨택센터에 첨단 AI 기술을 접목했다.

이와 함께 SKT는 'AI 카피라이터'도 출시했다. 'AI 카피라이터'는 LLM(초거대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수 초 만에 광고나 프로모션 문구를 제작하는 생성형 AI 서비스이다.

'AI 카피라이터'는 월 수만 건 이상의 광고문구를 생성할 수 있으며, 고객사 플랫폼에 즉시 연동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yeon@

## CJ올리브네트웍스, 스마트제조·물류 강화

에드버브 테크놀로지 파트너십

CJ올리브네트웍스가 글로벌 로봇·물류자동화설비기업 에드버브 테크놀로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스마트제조·물류 사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보유한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 구축 노하우에 에드버브 하드웨어(HW)를 통합해 설계, 구축,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6년 설립된 에드버브는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북미, 네덜란드,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에 진출, 미국 실리콘밸리에 연구개발(R&D) 센터도 운영 중이

며, 주요 고객사로는 DHL, 코카콜라, 아마존, 지멘스 등이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스마트제조·물류 시장을 공략을 본격화 한다. 기존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중심의 사업 영역을 넘어 운영기술(OT)과 하드웨어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에드버브와의 파트너십으로 당사가 종합 스마트제조·물류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양사 시너지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기업의 해외 제조·물류 사업들도 함께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 삼성SDS “올해 SaaS 사업 美 진출 원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39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황 대표 “클라우드·디지털물류 강화”  
이인실 전 통계청장 사외이사 선임

삼성SDS가 올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 미국 시장 진출 원년으로 선언했다.

삼성SDS가 20일 잠실 캠퍼스에서 제3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의결된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과 이인실 사외 이사 선임, 황성우, 구형준 사내 이사 선임, 이인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등이다.

이날 황성우 삼성 SDS 대표는 올해 청사진을 밝히며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3월 국내 1위 구매공급관리(SRM) 솔루션 기업

엠로를 인수하고 이어 5월에 온라인솔루션즈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SaaS형 글로벌 구매공급관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엠로 인수와 함께 온라인솔루션즈와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했고 여기에 더해 삼성클라우드플랫폼, 디지털 물류서비스 헬로스퀘어까지 결합된 형태를 만들었다”고며 “올해 초 SaaS 개발이 완료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액 13조 2768억 원, 영업이익 8082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매출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다만 중점사업인 클라우드 사업과 디지털물류 사업이 크게 성장

하면서 IT 서비스 사업 연간 매출액은 6조105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 클라우드 사업 단일 연간 매출은 1조 8807억원이며 IT서비스 내 클라우드 매출 비중 31%까지 늘었다.

황 대표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 “삼성SDS는 기업 맞춤형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기반의 CSP사업, 올인원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 업무 혁신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SaaS의 세 가지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올해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SCM 솔루션이 글로벌 SCM SaaS 시장에 진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HD현대건설기계

아프리카 시장 판로 다각화  
수단서 건설장비 60대 수출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아프리카 수단에서 34톤 대형 굴착기 6대와 22톤 중형 굴착기 36대 등 건설장비 6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수단의 내전으로 건설기계 무역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된 이후 글로벌 건설기계 브랜드 중 수단 시장에 재진입한 것은 HD현대건설기계처가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HD현대건설기계의 아프리카 시장 굴착기 판매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약 500대였던 굴착기 판매량은 지난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올해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건설기계는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SK C&C 애커튼파트너스

맞춤형 ESG 컨설팅팩 개발

애커튼파트너스가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기업의 ESG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오퍼링을 내놨다. SK C&C의 디지털 컨설팅 자회사 애커튼파트너스는 20일 맞춤형 통합 ESG 컨설팅팩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ESG 통합 컨설팅팩은 지주사, 금융, 에너지, 반도체, 소재, 화학 등 주요 산업군에서 실제 수행한 ESG 컨설팅 사례를 기반으로 개발했으며 ▲ESG 서비스 ▲기후변화 서비스 ▲디지털 ESG 서비스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ESG 서비스로 ESG 경영 성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진단·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후변화 서비스로 기후변화 규제 대응을 비롯해 넷제로, RE100 등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주최: metro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b>김명규</b>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b>윤건수</b>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b>이장규</b>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b>Robert Coppes</b> Prof 강연2: <b>Ryuichi Okamoto</b> Prof 강연3: <b>유종만</b>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b>손미영</b>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b>임승원</b>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 “꿈꾸던 생활과 집이 현실로” 살기 좋은 인프라, 차별화 된 단지설계

중심지서 누리는, 원스톱 교통망·학세권

도심 속 공세권, 더블GTX로 강남·강북 한방에!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GS건설**

GS건설은 이달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59~109㎡ 3214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11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13가구 ▲59㎡B 45가구 ▲75㎡A 210가구 ▲75㎡B 40가구 ▲75㎡C 10가구 ▲84㎡A 90가구 ▲84㎡B 260가구 ▲84㎡C 244가구 등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지 동쪽으로는 광주 북구를 대표하는 중의공원이, 서쪽으로는 운암산과 영산강이, 북쪽으로는 매곡산, 운암제 등이 위치해 있다. 단지일부에 랜드마크형 옥상 조형물과 측벽 디자인이 조명형으로 특화 적용되며, 단지의 상징이 될 대형 게이트와 열주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침실 창호를 전창으로 설계하고 조망형 유리난간을 적용한다. 약 5.2만㎡ 면적의 조경에는 어린이놀이터, 수변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에는 전 타석 GDR(골프존드라이빙 레인지)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채로운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동 지하층에는 세대 전용 창고(세대당 1개소)가 제공될 예정이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건본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중흥동)에 이달 중 개관한다. (1833-3090)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오는 4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총 3053가구로 1단지 59~108㎡, 1964가구를 비롯해 2단지 84㎡ 1089가구를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1단지 ▲59㎡ 319가구 ▲84㎡ 839가구 ▲108㎡ 806가구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되며 2

단지는 84㎡ 단일 평면으로 이뤄진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교통호재가 풍부한 곳이다. 먼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에 포함됐다. GTX-D·E 노선에 작전역이 포함됐으며,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GTX-D 노선은 서울 강남권역, E노선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권역으로 연결된다.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철과 연결되는 청라연장선도 추진 중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선은 인천 청라~계양~부천 대장신도시~서울 양천·강서구~경



기도 고양~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서인천IC, 부평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대중교통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에서 반경 1.5km 내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도 위치해 있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대로 홈플러스(계산점), 영화관CGV계양,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인천세종병원, 계양구청 등이 위치해 있다. 커뮤니티센터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과 필라테스룸, GX룸, 실내골프클럽 등 운동시설이 마련된다.

모델하우스는 4월 중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마련된다. (1670-3053)

단지 앞 초역세권, 희소성 높은 평지 아파트

신주거타운·듀얼생활권, 초고층 프리미엄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DL이앤씨**

DL이앤씨는 오는 4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일대에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15가구 중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2가구 ▲59㎡B 9가구 ▲59㎡C 20가구 ▲84㎡A 6가구 ▲84㎡B 6가구 ▲84㎡C 46가구 ▲99㎡A 4가구다.

부산 금정구 내 첫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로, 부산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지에 조성되는 초역세권 아파트다. 이곳은 단지 바로 앞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위치한다.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두실역을 통해 부산대역과 서면역, 부산역 등 주요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두실역에서 3정거장이면 도착하는 노포역에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금정구 구도심은 현재 총 15개 구역에서 각종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1만54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인근 구서 3·4·5구역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금정구 최초로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플랫폼이다. 전용 84·99㎡에는 입구에 가구 내부 수납이 어려웠던 자전거나 유모차 등 계절용품, 레저용품까지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도 제공된다.

주택전시관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마련된다. (051)782-5777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84~112㎡ 아파트 562가구와 84㎡ 오피스텔 129실 및 지상 1~2층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는 대전지하철 1호선과 2호선(2024년 착공예정, 트램) 유성은 천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을 이용하면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계통로, 도안대로 등의 이용이 쉬워 대전 전역으로의 차량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가 위치한 유성구 봉명동을 중심으로 재개발 등을 통해 약 1만여 세대의 신혼주거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전 유성구 일대는 다양한 개발호재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대는 530만㎡(160만평)규모의 ‘대전 나노·반도체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바 있



으며, 고속·시외버스 종합 터미널인 유성복합 터미널이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테마와 특색을 갖춘 다양한 편의시설이 유치된다.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쾌적한 자연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은 물론 인근 NC백화점, 홈플러스 유성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쇼핑시설과 유성온천역 일대 대형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다.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의 건본주택은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1555-5770)





부동산 시장이 침체 중이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분양시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에 청약이 몰릴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혼영이 일시 중단(3월4~22일)되면서 이달 분양은 손에 꼽을 정도다.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된다. 특히 지방 주요 도시에서 분양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입지와 가격이 청약수요를 유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 사통팔달 접근성 갖추고, 무심천변 조망권

## 트리플 역세권부터 숲세권까지 '황금입지'

###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 현대건설·금호건설

현대건설·금호건설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39~114㎡ 2330가구 가운데 1675가구를 일반분양 중이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이 들어서는 사직동 일대는 1만4000여 가구 대규모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사직3구역 인근에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을 포함해 사직1구역, 사직4구역, 사모1구역, 사모2구역, 모충1구역 등의 총 6개의 다양한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사직동 일대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사직동은 원도심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고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이미지 개선 등으로 청주시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54만㎡ 부지에는 1조원대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단지는 사직대로, 직지대로, 사운로, 상당로 이용이 편리해 청주 전역 접근성이 좋다.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을 통한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쉽



다. 단지 반경 1km 내에 홈플러스 청주성안점, 청주시청(계획), 청주의료원, 청주종합운동장 등이 있다. 인근에 한별초, 흥덕초, 청주중, 청주고 등의 학교가 있다. 여기에 금천동 학원가도 가깝고 충북교육도서관 이용도 편리하다. 아울러 단지는 무심천과 맞닿아 있어 수변 라이프를 즐길 수 있으며 무심천 체육공원, 운천공원 등의 공원도 가깝다.

국내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 금호건설이 시공에 나서는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일부세대 제외)로 채광이 우수하며, 통풍이 잘되는 판상형 구조(일부세대 제외)를 택했다.

###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 DL건설

DL건설은 이달 대전시 중구 문화2구역 재개발로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39~84㎡ 749가구 중 49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주택형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149가구 ▲59㎡B 49가구 ▲73㎡A 198가구 ▲73㎡B 99가구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KTX서대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이 예정돼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충청권광역철도도 추진 중이라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홈플러스 문화점, 코스트코 대전점, 롯데백화점 대전점 등이 있고 충남대학교 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등의 대형병원도 가깝다. 서대전공원과 보문산이 인접한 숲세권 입지에 유등천도 가깝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가 위치하는 대전 중구 일대는 지역 내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그동안 신규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다. 노후화가 진행돼 타지역 대비 저평가된 곳이다. e편



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주변으로 서구 도마면 동재정비 촉진지구 및 중구 유천, 문화, 선화, 용두동 등 정비사업(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가 4만 2000여가구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 타운으로 조성돼 향후 대전의 신흥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4베이 판상형(일부 세대) 특화설계, 차별화된 마감재 등은 물론 단지 외관과 조경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도 들어선다.

입주는 오는 2026년 12월 예정이며, 주택전시관은 서구 도산로 용문역 인근에 위치한다.

## 학군·자연·교통, 차별화 된 고품격 라이프

## 자연과 어우러지는 리조트 감성 '뷰 맛집'

### 대구 범어 아이파크

####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4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대구 범어 아이파크' 84~121㎡ 418가구, 오피스텔 37~59㎡ 30실을 중아파트 84㎡ 143가구, 오피스텔 37~59㎡ 30실을 일반분양한다. 대구에서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이며,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인근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위치해 있다. 또 도보로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어 '더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이를 통해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KTX동대구역도 이용 가능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이에 더해 대구 지하철 4호선(엑스코선)은 지난 2월에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가 발표됐으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은 수성구민운동장~범어~동대구역~엑스코 등 대구 주요역을 정차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대구어린이세상, 범어공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대구어린이세상에는 동물원, 식물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 대구 대표 도심 속 공원인 범어공원은 등산로,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공원에는 시문학동산, 유적지 등의 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국립대구박물관이 공원과 인접해 있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조합원 세대 및 일반분양 세대 내부(창호, 가구, 주방, 욕실 등) 모두 동일한 고급스러운 마감자재가 시공될 예정이다.

후분양 아파트로 공급되며 현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상동에 마련된다. (053)763-0418

###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 유림E&C

유림E&C는 이달 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원에서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84~112㎡ 1294가구를 분양한다.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는 단지 가까이에서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인 기장선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더블 역세권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차량 이용 시 가장IC를 통한 동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일광해수욕장이 인접해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주변으로 일광산, 일광이천생태공원, 삼성숲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일광신도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라는 점도 특징이다. 유림E&C는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를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리조트 감성의 대단지로 설계하고, 단지 내 약 1만여평의 조경면적과 약 1300여평의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아파트 조경은 삼성물산 조경사업팀이 설계 및 시공을 맡았다. 에버랜드 테마를 적용한 캐리비안베이 워터 그라운드(Water Ground), 사파리월드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를 비롯해 스포츠게임클럽, 미니골프클럽 등 다양한 특화 공간이 배치된다.

유림 노르웨이숲만의 커뮤니티 시설인 '노르딕하우스'도 기대해 볼 만하다. 노르딕하우스는 라운지존, 패밀리존, 스포츠존, 스티디존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모텔하우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민락역 4번 출구)에 조성한다. (051)755-1055



# 실적 부진에 몸집 줄이는 증권사 연봉 감액 속 삼성맨 '59억' 1위

경기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의 여파로 증권업계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임직원 수와 평균 연봉은 줄어드는 가운데, '연봉킹'은 견제하면서 '증권맨'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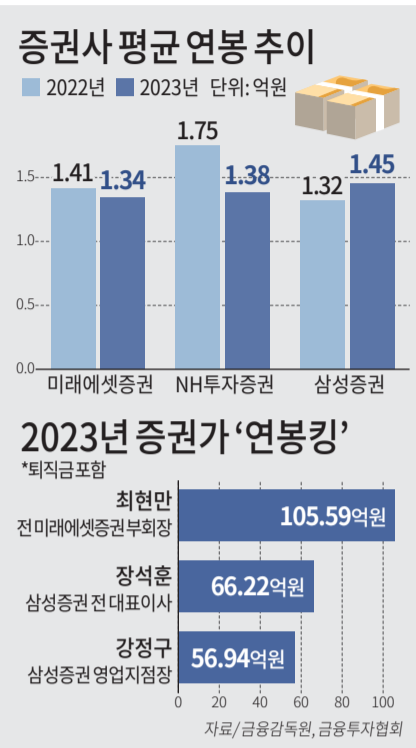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투자·메리츠·신한투자·하나·키움·대신증권)의 임직원 수는 2만3655명으로 2022년 말(2만3939명) 대비 284명이 감소했다. 전년 동기(35명)보다 감소 폭이 약 8배나 증가한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임직원 수는 1년 사이 143명(3.9%)이 감소했다. 지난해 희망퇴직, 부서 축소·조직개편 등을 단행하면서 증권사 중 지난해 인원이 가장 많이 줄었다. 평균 연봉도 2022년 1억4100만원에서 지난해 1억34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인력·인건비를 축소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업계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만큼 성과급 감소 영향으로 연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지난해 각각 51명(1.7%), 57명(3.7%)씩 줄었으며, 신한투자증권 37명(1.4%), NH투자증권 31명(1%), 하나증권 16명(0.9%) 등도 감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사별로 경영상황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성이 악화된다면 기업금융(IB) 분야 등 전문 계



금투협,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수 1년 사이 143명, 3.9% 줄어들어 평균연봉 1.4억→1.3억으로 감소

작년 말 10대 증권사 임직원 수 284명 줄어들어 2만3655명 불과

약자들을 중심으로 임직원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 개연성은 존재한다"며 "부동산 PF 사업이 부진하면서 해당 분야의 일이 줄어들다보니 이직·퇴사하는 경우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신증권은 지난해 증권가 내부 부동산 부실 우려에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1563억원의 호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임직원 수는 57명 감소하면서 전체 3.7%가 감축됐다. 증권가

연봉 상위권에는 양홍석 부회장(34억8000만원)과 이어룡 회장(32억2000만원)이 랭크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사내에서 의도적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이직·퇴사가 이뤄진 반면, 코로나19 이후 신규 채용없이 경력직 수시 채용만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회장·부회장의 평균 연봉만 봤을 때는 오히려 전년(약 38억원)보다 약 11%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5대 주요 증권사 중 전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평균 7% 가량 줄어들었다. 미래에셋증권과 더불어 NH투자증권도 2022년 기준 1억7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선방한 실적을 내놓았던 삼성증권은 유일하게 직전 해보다 1300만원 증가한 1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회성으로 분류되는 퇴직금을 제외한다면 실질적 '연봉킹'도 삼성증권에서 나왔다. 강정구 삼성증권 삼성타운금융센터 영업지점장의 지난해 연봉은 56억9400만원으로 퇴직금 수령자, 최고경영자(CEO)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금액이다. 앞서 2019~2021년에도 3년 연속 증권가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삼성증권 측은 "강 지점장은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국내외 유망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제안을 통해 고객 수익률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KB증권, 책무구조도 마련... 법 개정 대응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



/KB증권

KB증권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과 KB증권 전 본부 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임원 및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김성현 KB증권 준법감시인은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빠르게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법률에서 규정한 시기보다 먼저 도입하려 한다"면서 "모든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 및 직원들의 관심과 책임감 제고,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가짜 코인 거래소 투자 사기 '주의보'

금감원, 신고안한 거래소는 '불법' 온라인서 만나 고수의 투자 권유맨 사기일 확률 커... 의심·주의해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1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래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킴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의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했다. 끝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꼽았다. 금감원 측은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욱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한다는 점"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中 증시 반등... 중학개미들 다시 'Buy'

예탁결제원, 개인투자자 보유 中주식 10억 달러, 전월비 8727만 달러 ↑ "디플레이션 등 변동성 커 투자 주의"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떠났던 중학개미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침체, 미·중 갈등 등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8일까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주식은 총 10억 1913만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8727만달러 증가했다. 보관금액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이 들어온 해외 주식을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금 규모를 뜻한다.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 및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중국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판단한 국내투자자들이 중국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고 천명한 전기차,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중국 최대 전

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를 343만달러어치 사들였다. 이어 배터리 기업 CATL(102만달러), 리튬 대기압 간평리튬(87만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앞서 중국 주식시장은 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한 것에 비해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같이 중국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중국 정부는 증시부양에 나섰다. 중국 증권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초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밝혔다. 또 지난 1월 2조위안(약370조원) 규모의 증시 안정화기금을 투입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국부펀드 운영사인 중국투자공사(CIC) 산하 중앙후이진투자 등이 대거 주식 매수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출을 확대하며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을 기존 연 4.20%에서 3.95%로 0.25%포인트 인하해 역대

최저치로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 주요 지수들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CSI300 지수는 연초 이후 4.27% 올랐으며 상하이지수도 3% 가량 상승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이차전지 관련 ETF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TIGER 차이나전기차 레버리지(합성)'은 최근 일주일 수익률이 19.28%를 달했다. KODEX 차이나 2차전지MSCI(합성)와 TIGER 차이나 전기차SOLACTIVE도 각각 10.25%, 9.74%를 기록했다.

중국 증시 상승으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역시 당국의 정책 강도가 과격하지 않고 디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 tok tok )



©후카후카스튜디오의 스마트톡 시리즈인 톡톡은 모두 수작업으로 마감한 제품입니다.  
 가장자리에 등글림 작업을 하여 사용 시 날카로움이나 거슬림 없이  
 조약돌처럼 매끈한 감촉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작 방법으로 거슬림을 없애고 입체감은 살린  
 후카후카스튜디오만의 특별한 톡톡을 만나보세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후카후카스튜디오 ]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 일자리·경제·인구 정주 선순환 구축

고용부, 부산·인천 등 5곳과 진행 이성희, 부산관광·마이스업 활성 지원센터 방문 주력산업 관광·마이스업 활성 지원센터 방문·전시 전문인력 양성 등 시행



국적으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등이 양호하지만,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이 심화되고, 중소기업 빈자리에는 올 1월 기준 19만8000개에 달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직면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고용부와 자치단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날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에는 부산을 비롯해, 인천, 충북, 전북, 경북 5곳이 참여한다.

부산시의 경우 지역 주력산업인 관광·마이스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일경험사업, 고용서비스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종합한 '부산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붐-업(Boom-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통역·전시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등 맞춤형 채용 지원, 임금·복지 지

원을 통해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등 패키지 지원 모델을 설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관광·마이스업은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인만큼 코로나19로 유출된 인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맞춤형 교육훈련과 신규 채용 지원, 장기 근속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설계하고,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부단체장이 직접 주관하는 지역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협업 및 프로젝트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 등 보다 많은 지역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둬 '양질의 일자리-지역 경제 성장-인구 정주'의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부산의 관광·마이스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자치단체 협업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신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성희 차관(사진)이 올해 부산시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관광·마이스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부산관광·마이스업 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연계·집중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국적인 고용 상황은 견조하게 유지되는 반면, 지역에서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고용상황은 전

## 정부,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 축소 돕는다

고용부, 상생연대 형성지원사업 공고 대기업, 협력사 위한 자원 마련 시 지원 사업주 출연분 100%, 근로자 200%

원하청 간 격차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대기업(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사 등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을 통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하고 원하청 간 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고, 이들이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은 최대 200%로 책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과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부, 배달용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총 320억 보조금 지급해 4만대 보급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엔 50억 편성

올해부터 배달용으로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할 시 보조금(국비 지원) 10%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배달용임을 입증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총 320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 올해 전기이륜차 4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보급을 목표로 50억원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

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형 오토바이는 140만 원, 소형은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은 270만 원, 대형은 3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보조금 상한액 자체는 지난해와 같으나, 종전에 기타형 상한액이 적용된 화물운반용의 상한액이 올해부터 대형과 같은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오토바이는 기존에 '등판성능이 우수한 3개 전기이륜차의 평균'과 차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했었다. 올해부터는 '전체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이 바뀌면서 소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8~10만 원 증

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10% 더 받는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화물운반용과 마찬가지로 배달용은 다른 이륜차보다 더 자주, 더 긴 거리를 운행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보험료가 분 단위로 책정돼 실제 운행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면 배달용으로 이륜차를 구매했다고 인정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새로 배달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험증서를 사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식품부, 스마트팜 컨소시엄·기업 13곳 선발

스마트팜 수출·수주 정부 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실시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모집에서 4개 컨소시엄과 9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3곳의 스마트팜 수출 및 수주를 정부가 밀착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컨소시엄별 프로젝트 계획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발대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19일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에는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적용돼야 하므로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규모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 지원은 해외 수주 프로젝트 계획을 보유한 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해, 1년간 해당 프로젝트를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수출기업과 여러 차례 가진 간담회에서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수주 제안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성공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현장의 목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 내 농식품부

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발대식에는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 혁신정책관, 정의영 KOTRA 혁신성장본부장이 참석해 선발된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별 프로젝트 계획과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현지 기반 구축과 컨설팅, 전담직원 매칭 등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스마트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기업 간 상승효과 발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전통시장 51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농식품부, 22일까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20~22일 사흘간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권, 6만7000원 이상 → 2만 원권을 받는다.

소비자들은 행사참여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참여 시장 목록 등 세부사항은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21일~4월 말 기간에 총 600억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어촌공, 한국형 스마트농업 확대 나서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한국농어촌공사가 20일 한국형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확대를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는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스마트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스마트팜 온실을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공사가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22년 이후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4곳에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했다. 스마트농업 실현 공간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엔 '스마트농업전담조직'을 구성해 스마트농업 전환 가속화를 꾀하고 있다.

또 온실 중심의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본부

/농어촌공사

노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스마트농업을 접목한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조성사업'으로 스마트농업의 저변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농산업수출활성화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움직인다. 공사는 수출국 인허가 취득을 비롯해 해외박람회·로드쇼 지원, 맞춤형 정보·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수출 역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유통 수장들,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 SNS에 챌린지 공개

##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다회용기 배달 등 친환경 활동 소개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  
포장재 순환 일환 화장품용기 수거

유통업계 수장들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범국민적 실천 운동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추진한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안녕이라는 의미의 양손을 흔드는 사진과 함께 탈플라스틱 실천 각오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한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이국환 대표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이국환 대표는 챌린지 영상에서 우아한형제들이 고민하고 노력해 온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소개했다.

먼저 이 대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배민의 노력으로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꼽았다. 이어 이 대표는



이국환 배달의민족 대표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배달의민족 공식 SNS 갈무리



이상목 아모레퍼시픽 대표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아모레퍼시픽 공식 SNS 갈무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활동으로 배민B마트에서 비닐 완충재 대신 사용하는 종이 완충재, 배민문방구의 종이 박스 테이프, 사내 카페 이용 시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하는 ‘빌린컵’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배민의 친환경 활동은 고객과 자영업자들이 있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뿐 아니라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우미령 러쉬코리아의 대표를 지목했다.

이처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특히 유통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민품 기업 수장들이 직접 나서 탈플라스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아모레퍼시픽그룹 이상목 대표가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 운동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전사 차원의 플라스틱 절감을 약속하고 고객과 함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초 ‘레스 플라스틱 위아 판타스틱(LESS PLASTIC. WE ARE FANTASTIC!)’ 캠페인을 론칭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제품 포장재 순환을 위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백화점, 마트, 아리따움 등의 매장에서 총 2583톤의 화장품 용기를 수거했다.

이상목 대표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아모레퍼시픽그룹

구성원과 고객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라며, 우리가 만드는 제품 역시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자로는 SSG닷컴 이인영 대표와 WWF 한국본부 박민혜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탈플라스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그에 따른 일환이다. 정부가 범국가적 환경 활동을 위해 적극 나선 만큼 기업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양한 환경활동을 선보여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따라 갈 수 있다. 이는 국민들로까지 선한 영향력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SSG닷컴

### 다이슨 신상품 세계 첫 출시 24일까지 프로모션 진행

SSG닷컴이 글로벌 기술 기업 ‘다이슨(Dyson)’의 신제품을 전세계 이커머스 플랫폼 중 최초로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썬닷컴은 최근 수년간 해외 명품 패션/뷰티 브랜드의 신상품 단독 선출시를 확대해 왔고, 프리미엄 디지털가전 분야의 선두 주자인 다이슨의 신상품도 온라인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하는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는 헤어 스타일링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판매가격은 59만9000원이다.

기기와 모발 사이 거리를 측정하고 모발에 가까워질수록 열을 줄여주는 ‘두피 보호 모드’를 비롯해 자주 사용하는 온도 및 바람 속도를 기억해 자동 전환해주는 ‘스타일링 노즐 러닝 기능’ 등이 탑재됐다.

다이슨 신제품 선출시를 기념해 썬닷컴은 오는 24일까지 ‘브랜드 스포트라이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면 SSG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 ‘테라’ 누적 45.4억병 판매... 연평균 17% 성장 기록

## 하이트진로 ‘테라’ 출시 5주년 3년 연속 브랜드스타 ‘100대 브랜드’ 5년간 가정 판매 연평균 26% 성장

하이트진로는 대표 맥주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테라’가 누적판매 45억 4000만병을 돌파(3월19일 기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초당 28.8병이 판매(330ml 기준)된 꼴이며, 21세기 이후 출시한 맥주 브랜드 중 동일 기간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이다. 지난해 브랜드스타 이발표한 100대 브랜드에 3년 연속 들어 대세 브랜드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테라는 2019년 3월 출시 후 39일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 맥주 브랜드 중 출시 초기 가장 빠른 판매 속도 기록을 세우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



청정라거-테라가 출시 5주년 누적판매량 45억4000만병을 돌파했다. /하이트진로

기를 넘기고 5개년 연평균 성장률 17%를 기록하며 대세감을 이어가고 있다.

테라의 성공 요인으로는 제품력과 채널별 차별 전략을 꼽을 수 있다. 테라의 100% 리얼탄산 공법은 거품이 조밀하고 탄산이 오래 유지되며, 라거 특유의 시원한 청량감을 극대화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의 강점인 제품력을 기본으로 가정, 유흥 채널별 전략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제품다양화 전략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가정 채널을 공략했다. 새로운 용량의 캔맥주, 싱글볼트 에디션 등 다채로운 한정판 제품들을 출시하며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테라의 가정 채널 판매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6%를 기록했으며 홈술 트렌드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캔맥주의 연평균 성장률은 33%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이트진로는 올해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반 음식점, 술집 등 유흥 채널에서

는 재미 요소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이 주효했다. 스푸너, 썬팩터워와 같이 테라만의 독자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여 20대 젊은 소비층을 공략했다. 그 결과 테라의 지난 5년 유흥 채널 판매는 연평균 16% 성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올 상반기에도 성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대학가를 집중 공략한다. 처음 맥주를 마시는 20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대학가 중심 상권에서 ‘테라 컬러잔’ 등 신규 굿즈 활용과 함께 MT, 대동제에 테라 음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행에 민감한 20대 소비자 사이에서 인지도 높은 패션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대학생 소비자들을 공략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올떡 잠실 롯데월드점이 매장 대형화와 메뉴 고급화 전략에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너시스BBQ

## 올떡 잠실 롯데월드점

### 오픈 100일 월매출 31%↑ 새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올떡의 최초 프리미엄 매장인 잠실 롯데월드점의 고급화 전략이 새로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제너시스BBQ 그룹의 떡볶이 전문 브랜드 ‘올떡(ALL TOKK)’은 작년 12월 선보인 ‘올떡 잠실 롯데월드점’이 오픈 100일만에 큰 폭의 매출 상승을 이끌며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떡 잠실 롯데월드점은 오픈 이후 3만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으며 최근 1개월 매출은 오픈 직후 한 달 대비 30.9%나 증가했다. 해당 매장은 서울 대표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연간 1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았다. 주말 및 연휴에 몰리는 친구, 연인, 가족단위 고객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매장대비 3배 큰 102.5㎡(31평) 40석의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일반 분식 메뉴뿐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 볼 수 없는 등심 돈까스, 볶음밥, 치킨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다양한 연령대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신원선 기자

# 등기이사 보수 한도 55억→65억 증액 등 안건 통과

## 롯데칠성음료 ‘주주총회’

롯데칠성음료가 주주총회를 열고 등기이사 보수 한도 증액건과 김희웅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일 롯데칠성음료는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등기이사 보수 한도를 기존 5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또 김희웅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군산공장 식품용 탄산가스 제조 등)도 통과됐다. 사업목적으로 식품용 액화탄산가스 제조업을 추가하고, 군산공장에서 식품용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할 계획이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이날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올해는 ‘건강하고 존경 받는 기업가치 실현’을 경영 방침으로 삼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메가브랜드 육성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 ▲밸류 체인 고도화를 위한 의사결정 고도화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형 조직문화 구축과 ESG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국내외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주주 배당 확대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 CJ올리브영 “‘헬시 라이프’ 대표로 성장할 것”

헬스플러스, 앱인앱 형태로 도입 관련 상품, 코로나 전비 2배 늘어 카테고리 상품 큐레이션 확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검색 차별화

CJ올리브영(올리브영)이 모바일 앱 내 웰니스 전문관인 ‘헬스+(헬스플러스)’를 앱인앱(App in app) 형태로 도입하고, 상품 큐레이션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매출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올리브영은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에 따라 한국 2030세대의 관심사가 웰니스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로운 상태를 뜻한다. 웰니스산업은 좁게는 건강식품, 개인 위생용품부터 넓게는 일상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 상품과 서비스까지 포괄한다.

최근 몇 년간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꾸준히 늘면서 현재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웰니스 관련 상품



올리브영 앱인앱 ‘헬스+(헬스플러스)’

/CJ올리브영

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리브영은 웰니스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고객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한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를 발굴 및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리브영 모바일 앱 내에 별도 앱인 ‘헬스+(헬스플러스)’를 도입하고 ▲W케어(여성건강용품) ▲이너뷰티(섬취를 통해 미용을 관리하는 제품) ▲면역 ▲라인케어 ▲수면 등 관련 카테고리

의 상품 큐레이션을 확대했다.

헬스+의 차별화된 기능 중 하나는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찾기’다. 성별, 연령(성인,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건강 상태(임산부) 등 소비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대상 부위별(눈, 피부, 장, 근육 등), 상품 효능별(항산화, 면역관리, 체지방 관리 등) 상세 검색도 가능하다.

‘오늘의 특가’와 ‘오늘의 건강 랭킹’ 서비스를 통해서 올리브영이 엄선한 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인기 브랜드와 상품도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지난 2022년 W케어, 2023년 이너뷰티 등 주요 카테고리를 국내 소비자에게 빠르게 제안하면서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면서 “올리브영의 독보적인 큐레이션 및 트렌드 발굴 능력을 바탕으로 ‘헬시 라이프’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비영리기구인 글로벌웰니스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웰니스시장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7500조원)다. 한국 시장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인도, 캐나다에 이은 세계 9위(1130억달러)로 추산된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수 등이 한국과 비슷한 캐나다보다 아직 시장 규모가 작다. 그럼에도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2022억원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27% 성장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이베이재팬

큐텐재팬 최대할인 행사서 韓 차 판매량 171% 올라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힙하고 트렌디하게 여기는 ‘K-힙’이 일본 음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MZ세대 사이에서 울무차, 유자차 등 한국 전통차를 비롯한 다이어트 차, 다이어트 음료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베이재팬은 20일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 ‘큐텐재팬’ 최대 할인 행사 1분기 메가와리(3/1~3/12)에서 한국 차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71%)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 다이어트 차 카테고리에는 3배(206%), 다이어트 음료는 4배(289%) 가까이 올랐다.

울무차와 유자차, 콤포차 등은 일본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차 제품이다. 최근에는 이너뷰티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효소, 붓기차, 허브티, 다이어트 음료 등까지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LG생활건강

가벼운 발림성·촉촉한 수분 구찌 글로스 아 레브르 출시

LG생활건강은 가벼운 발림성에도 촉촉한 수분감을 선사하며 도톰한 입술을 완성할 수 있는 립 글로스 ‘구찌 글로스 아 레브르’ 6종을 국내에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 ‘구찌 뷰티’의 국내 공식 판매처로 마케팅과 유통,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구찌 글로스 아 레브르는 고급스럽고 우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구찌 뷰티의 철학을 담았다. 구찌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바토 데 사르노는 자연스럽게 자신감 넘치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을 이번 제품에 구현했다.

구찌 글로스 아 레브르는 입술에 바르는 순간 빛을 머금은 듯한 투명한 광택과 짙 찬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플러핑’ (도톰함)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롯데웰푸드 ‘가나초콜릿 하우스’, 방문객 9000명 육박

(오픈 9일 만에)

MZ부터 부모 세대까지 함께 방문 2개 프로그램, 예약 경쟁 치열 사계절 콘셉트 인테리어 매주 변화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이달 9일 서울 성수동에 오픈한 ‘가나’ 브랜드 팝업스토어 ‘가나 초콜릿 하우스 시즌3’가 성황리에 운영중이다.

가나 초콜릿 하우스는 오픈 첫 주말(9, 10일) 약 2500명의 방문객이 몰렸으며, 이용을 위한 대기 줄과 기념사진을 남기는 손님들로 팝업스토어 안팎이 북적였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오픈 9일이 지난 가나 초콜릿 하우스의 누적 방문객은 9000명에 육박할 정도다. 지난 2022년 역시 성수동에서 열렸던 시즌1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방문객 수가 2배에 달한다.

MZ세대의 핫플레이스 성수동에서 열린 만큼 젊은 세대도 많이 방문하지만 가나초콜릿과 오랫동안 함께한 부



가나 초콜릿 하우스 시즌3를 방문한 고객들의 모습.

/롯데웰푸드

모 세대 소비자들도 추억과 함께 방문한다.

팝업스토어 2층에 가나 브랜드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된 ‘가나 헤리티지 존’을 방문한 가족 단위 손님들은 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패키지와 시대별 광고 등을 함께 둘러보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한다.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쁘띠 가나 디저트 플레이트’와 ‘나만의 가나 만들기 클래스’도 경쟁이 치열하다. 예약 오픈 1분 이내에 마감되고, 예약 대기인원이 2000명이 훌쩍 넘어설 정도다.

쁘띠 가나 디저트 플레이트는 5종의 가나 디저트 세트와 음료 2잔이 제공되

며, 매일 20팀만 한정 운영된다. 나만의 가나 만들기 클래스에서는 전문 쇼콜라티에와 함께 가나초콜릿을 활용한 나만의 초콜릿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예약 앱 캐치데이 블에서 예약할 수 있다.

가나 초콜릿 하우스는 초콜릿을 디저트로서 즐기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가나초콜릿 응용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다. 메뉴와 매장의 콘셉트는 사계절을 본따 매주 변화한다. 오는 3월 24일까지는 여름 계절을 연상하게 하는 메뉴와 인테리어를 즐길 수 있다. 이달 26일부터 31일은 가을 계절, 4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겨울 계절을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1975년 출시한 대한민국 대표 초콜릿 가나의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디저트’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브랜드에 부여하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 1KMWINE, 최상급 ‘그랑 크뤼’ 와인판매 행사

창립 2주년 기념... 25일까지 진행

온라인 와인 플랫폼 ‘1KMWINE’이 창립 2주년을 맞아 최상급 ‘그랑 크뤼’ 와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터 기간에 멀리까지 방문해 오픈런을 할 필요 없고, 재고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문의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내 주변 가까운 술에

서 만날 수 있다.

주목할만한 와인은 샤토 오브리옹 2020, 샤토 라푸르 2009, 샤토 파비 2016, 샤토 슈발 블랑 2005, 샤토 페투르스 2009 등 로버트 파커 100점을 받은 컬렉션 와인들이다. 또, 로버트 파커 95점 이상의 올드 빈티지 그랑 크뤼 와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와인 애호가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와인들은 모두 프랑스 현지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보관되어 왔고 냉장 수

입 과정을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으며, 국내 와인 전용 물류창고의 별도 셀러에서 보관 중이다. 프랑스 현지에서 와인을 선택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예약 구매 방법 또한 간단하다. 1KMWINE 앱 설치 후 5일간의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원하시는 와인을 선택하고, 픽업할 매장을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 주문한 와인은 이후 4월 1일부터 1주일간 지정된 매장에 방문해 픽업할



1KMWINE이 프랑스 그랑 크뤼 와인 행사를 진행한다. /1KMWINE

수 있다. 와인이 매장에 도착하면 알림톡을 통해 입고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 빛꽃 에디션



광동제약은 봄기운을 담은 광동 옥수수수염차 빛꽃 에디션(사진)을 한정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계절감에 걸맞은 화사한 패키지가 특징이다. 제품 라벨에는 빛꽃무늬와 총 6가지의 ‘일상 속 설렘 메시지’가 랜덤으로 쓰여있다. 봄이 주는 특별한 설렘을 더욱 만끽하게 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라벨을 확인하며 재미를 더한다는 취지다.

광동 옥수수수염차 빛꽃 에디션은 광동제약 F&B 전용물 광동상회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현재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개화시기에 맞춰 전국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세경 기자



# 왕돈까스버거

## 버거의 선을 넘었다



돈까스 소스  
추가증정  
소스 추가구매 ₩300

단품 ₩7,500  
콤보 ₩8,700  
세트 ₩9,400

### 매운왕돈까스버거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도요타, 아주자동차대에 장학금 8000만원 전달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지난 19일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도요타자동차 코리아 마나부 대표(왼쪽), 아주자동차대학교 이수훈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요타자동차



금호석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봉사

금호석화학이 결식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급식봉사를 통해 취약계층과의 동행에 나섰다. 금호석화는 본사 직원들이 종로구 소재 '서늘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급식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지역 내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배식, 식사 보조, 뒷정리 등을 진행했다. /금호석화학



메타빌드-엔터플, APAAS·플랫폼사업 공동 추진

AI·데이터연계 SW 기업 메타빌드가 엔터플과 지난 18일 APAAS(Application Platform as a Service) 및 노코드 플랫폼 사업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와 박현민 엔터플 대표가 업무협약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메타빌드



인하대-인천시교육청, 기후환경 교육 교류 MOU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시교육청과 기후환경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하대와 인천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공동 개발·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이랜드월드,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신입공채 전형은 내달 7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직무는 ▲영업 ▲상품기획 ▲마케팅 ▲온라인MD ▲빅데이터 ▲글로벌소싱(생산) ▲전략기획 ▲재무 ▲자금 ▲인사 부문 등 10개 일반 직무와 ▲의상디자이너 ▲소재디자이너 ▲VMD 부문 등 3개 디자이너 직무를 모집한다.

서류 접수 전형을 시작으로 ESAT 직무적성검사, 1차면접, 인턴,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패션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지원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vitna@



홍경안의 시시일각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에게 예술은 자유의 표현이다. 벨기에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는 예술을 사회적인 규칙과 문화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예술의 개념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을 포괄하기에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수 세기 동안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해왔지만, 예술 자체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명쾌한 답 또한 내놓지 못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만큼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역시 쉽게 규정하기 어렵다.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으나 정답은 아니다. 각종 재난의 시대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

예술과 역할에 대한 정의

한 인식을 되묻고 디지털 시각 체제와 현실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는 것 자체를 예술의 역할로 꼽는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같은 이들도 있다.

이 밖에도 예술의 역할에 관한 판단은 여러 가지다. 누군가는 욕망의 표출과 행복의 실현을, 어떤 이들은 인간 존재 의미의 탐구 및 전달을 예술의 역할로 본다. 혹자는 타인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제공하거나 위안을 심어주면 예술 본연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 여긴다.

모두 맞다. 그것이 실체보다 외관을 강조함으로써 예술의 피상성과 소비주의 문화에 기여할지라도, 또는 기술을 예술의 전부로 착각하는 결과물이라도 각각의 역할은 있다. 심지어 장식적이거나 풍수적인 작품들(미술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요소)조차 어떤 이에겐 예술로서 제 구실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예술관이 다르고, 예술이 이해되는 방식에 관한 생각 또한 동일하지 않다. 미와 예술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게 답답하

지만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없다. 다만 예술의 정의와 역할이 무엇이든 굳이 예술가일 이유가 없는 것과 반드시 예술가에게 가능한 것의 분간은 필요하다. 예술가와 예술가적인 것의 간극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는 사회 전반의 문제와 대면하고 현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예술로 여겼다. 요셉보이스(Joseph Beuys) 같은 인물은 예술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에게 예술(가)과 그 역할이란 사회 혁신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공통된 믿음이 있다.

미술평론가 김영호의 말처럼 '예술은 당대의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예술은 사회적 진보와 문화적 다양성 촉진에 기여해야 하고, 부조리한 구조와 제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순응적인 모든 문법에 저항하는 실천성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술의

역할과 가치가 빈곤한 시대다. 편협의 극단에 이른 현재다. 예술가들은 보편성을 상실한 개인의 서사와 공동체적 이슈를 분간하지 못하고, 예술제도는 방향의 정립보다 온갖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바쁘다. 만약 그것이 바른길이라면 우리 예술(가)에 대해 잘못 배웠다. 그게 영원한 진실이라면 예술의 본래 기능이란 애초 존재 불가능했거나 위선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2월 같은 지면에서 나는 "예술가는 역사와 사회적 변화를 기록하는 존재다."라고 썼다. 예술작품에 대해선 그 자체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논평자, 인류사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을 촉구하는, 대화와 변화의 촉매제라 정의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 모든 건 결국 핵심 주체인 예술가들에 의해 선도돼야 한다는 것도, 정치를 비롯해 인간 삶을 억압하는 터전을 불태워 새싹을 틔게 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라는 점에서도 같다.

/미술평론가

거래소, 부산 경쟁력 강화 앞장... '아동친화도시' 후원금 10억 전달

난치질환아동 치료비 등 활용 "살기좋은 도시 될 수 있도록 지원"

한국거래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 소재 KRX부산본사 6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거래소는 부산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후원금 10억원을 연중 부산지역 복지단체를 통해 후원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은 그 첫 번째 후원으로 이를 통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입학에 앞선 발달장애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일상생활훈련, 부모교육 등 학교적응을 위한 필수교육을 후원한



(첫번째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정대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배병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승희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부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다. '발달장애아동 학교 적응 지원'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피해아동 심리·정서 회복, 지역아동센터 및 놀이터 환경개선, 희귀난치질환 아동 치료비 지원 등 부산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후원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장애로 인해 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많다"며 "이번 후원을 시작

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산시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에쓰오일, 예술인 창작활동 등 문화예술 발전 지원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전개 아트로버컴퍼니에 1.8억 후원

에쓰오일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발전 지원에 나선다.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24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아트로버컴퍼니에 공연예술 후원금 1억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지난 1월에 공연한 음악 그룹 '듀에토'가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에쓰오일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6월 마포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시작한 문화예술 후원 프



(왼쪽부터) 에쓰오일 류열 시장과 정현욱 아트로버컴퍼니 대표가 20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2024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로그램이다. 에쓰오일은 본사 사옥 로비와 대강당에서 그동안 129회의 무료 공연을 개최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약 3만7000명을 초대했다.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비롯해 연극·뮤지컬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달 공연 일정을 공지하면 가족 단위 신청자들의 문의가 쇄도해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라며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스타필드 '에스 두들' 시즌2 진행

스타필드가 지난해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은 낙서 행사 '에스 두들(Yes Doodle)' 시즌 2를 진행한다

고 20일 밝혔다. 이번 에스 두들 시즌2 행사는 스타필드 고양(3/8~3/21)과 하남(3/13~3/26), 안성(3/23~4/5), 수원(3/28~4/10)에서 진행된다. 점포별로 ▲쿠ќ름 ▲놀이방 ▲정원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이색 체험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예금보험공사 ◇임원선임 △이사 이병재



# 스튜디오삼익, 성장세 뚜렷... 갑진년 '매출 1000억' 달린다

스튜디오슬립 등 자체 브랜드 확대  
2022년 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최정석 대표 "올해 추가성장 기대"

지난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온라인  
홈퍼니싱 기업 스튜디오삼익이 '순항'  
하고 있다.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관련  
시장에서 매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등 영역을 넓혀가면서다.

20일 스튜디오삼익과 금융감독원 전  
자공시에 따르면 잠정치 기준으로 지난  
해 95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000억  
매출'에 더욱 바짝 다가섰다. 직전년도  
매출은 866억원 수준이었다. 10.2% 가  
량 매출이 늘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한 것이다.

영업이익도 2022년 24억원에서 지난  
해 29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당기순이  
익은 25억원(2022년 19억원)을 기록했  
다. 주당이익은 575원에서 734원으로 1  
년새 27.6% 늘었다.



최정석 스튜디오 삼익 대표

스튜디오삼익은 종합 홈퍼니싱 기업  
이다. '홈(home)'과 꾸민다는 의미를  
가진 '퍼니싱(furnishing)'을 합한 단  
어로 가구, 인테리어 소품, 홈스타일링  
용 생활용품 등의 제품이 여기에 포함  
된다.

국내에선 스튜디오삼익 외에 한샘,  
신세계가사, 현대리바트, 오하임앤컴퍼  
니, 동서가구 등이, 해외 브랜드로는 이  
케아코리아가 있다.

스튜디오삼익은 현재 삼익가구를 온  
라인으로 판매하는 '삼익퍼니처', 2040



죽산목공소 제품 이미지

/스튜디오삼익

세대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스칸디아',  
원목가구 브랜드 '죽산목공소', 침대·  
매트리스 수면 전문 브랜드 '스튜디오  
슬립' 등을 선보이고 있다.

최정석 스튜디오삼익 대표는 "지난  
해 10월 론칭한 스튜디오슬립은 고급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가격 부담은 낮추  
자는 목표로 내놓은 중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면서 "기존의 삼익퍼니처, 스  
칸디아의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시장  
추가 공략을 위해 긴 호흡으로 선보인

브랜드인 만큼 제품 라인업을 추가로  
확대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올해 안착을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  
했다.

스튜디오삼익은 스튜디오슬립을 선  
보이기 위해 2년간 핵심소재에 대한 연  
구와 시험을 진행해왔다. S9 매트리스  
의 경우 스테인레스 스프링, 말총, 메모  
리폼 등 고급 소재로 만들었다. S7 매트  
리스는 마이크로 스프링, 미니포켓스프  
링 등 고가의 스테인레스 스프링을 탑

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구 소  
매판대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은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당시 41.55% 수준이던 온라  
인 비중은 지난해 51.4%로 절반을 넘어  
섰다. 온라인 구매는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스튜디오삼익의 주력 파트너사인 쿠  
팡이 이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  
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분기별 매출을 보  
면 4·4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올해도 시작이 좋은 분위기"라  
면서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고, 금리 상  
승세도 멈추는 등 가구시장을 둘러싼 거  
시적 여건도 호의적인 모습이어서 올해  
추가 성장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  
한 스튜디오삼익은 이날 현재 1만5000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왼쪽부터)투신(Tuushin)그룹 푸림출판 부사장, 저리트 남스라이자브 사장, (주)한진 노삼석 대  
표, 조현민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진, 몽골 물류사업 본격화

몽골 대표 물류기업 투신그룹 MOU  
"현지 업체 파트너십 강화해 나갈 것"

한국과 몽골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이  
만나 몽골 현지 물류사업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건다.

한진은 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한진  
빌딩에서 몽골 최초의 종합물류기업 투  
신(Tuushin)그룹과 상호 포워딩과 물  
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1945년 한진상사로 태동한(주)한진은  
약 80년 업력으로 물류사업에만 집중한  
종합물류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쌓아올  
린 전문성과 물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근 해외로 활발히 진출해 올해 22개  
국, 42거점(17개 법인)으로 글로벌 사업  
을 영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진은 지난해 10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면  
서 몽골 내 광범위하게 퍼진 한류를 바  
탕으로 한국과 몽골 간 활발한 교역에

수반되는 물류서비스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사업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한진은 투신그룹과 협약을 통해 향후  
항공·해상·내수 포워딩 사업 부문에 대  
한 운임과 보유자원에 대해 상호협력하  
는 동시에 물류 부문 서비스 역량을 공  
동개발하며, 양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교차 활용해 거점을 효과적으로 늘려나  
가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몽골 국토교통부가 현재 울란바  
토르 내 밀집도 해소를 위해 물류산업  
을 육성 추진하는 가운데 울란바토르  
도심 인근 연 60만 TEU 규모의 통합물  
류센터 구축에 대한 협의 역시 검토가  
이뤄져 고무적인 상태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향후 현지 유  
통기업들과 영업망 활성화를 비롯해 철  
도 관련 포워딩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물류사업  
강화를 위해 역량을 보유한 현지 업체  
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벤처기업 70% "플랫폼법 제정 반대"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인식 조사  
응답기업 90% "글로벌 경쟁력 약화"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공정거래위  
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  
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230곳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해 2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 벤처기업의 68.7%  
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  
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 지정하  
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벤처기  
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4가  
지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도입

시 우려 사항도 조사했다. 그 결과, 공  
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  
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플  
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  
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  
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  
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에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동의한 것  
으로 조사됐다. ▲폐쇄적인 행정편의  
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  
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  
내·외 벤처투자 위축을 우려한다는 비  
중도 높았다. /김승호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이 윤호영 카카오  
뱅크 은행장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 기보-카카오뱅크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기술보증기금이 카카오뱅크와 함께  
비대면·디지털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  
해 나선다.

20일 기보에 따르면 협약은 최근 인  
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기반 비대면 금  
용서비스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 신속  
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의 디  
지탈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  
응하기 위해 유익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비대면 금융  
지원 플랫폼 구축 ▲비대면·디지털  
금융상품 공동개발 ▲기업 데이터 교  
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통합 금  
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  
정이다.

기보는 향후 카카오뱅크 비대면 채널  
을 통해 보증신청·접수, 자료수집, 보증  
약정, 대출실행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  
한 '원스톱(One-Stop) 보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韓 중소기업 동남아 진출 지원

강석진 이사장, 현지기관 협력관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한국 중소기업 동남아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  
흘간 강석진 이사장(사진)이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전문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 한·태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과 국내 기업의 태국 진출 활



성화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 이사장은 또 싱  
가포르 항공우주산업  
협회(AAIS)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  
국의 미래항공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시  
장 진출 지원을 공동 추진기로 했다. 아  
울러 싱가포르 내 동남아시아 투자전문  
회사인 리겔 캐피탈과 한국 스타트업 투  
자펀드 조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유엔 인권최고대표, 홍콩 新국가보안법 통과에 우려
- ▲ 美, 테슬라 독점 기술 빼내 사업에 이용한 중국인 등 기소



- ▲ 한국 선박, 日 혼슈 서부 야마구치 앞 바다서 전복
- ▲ "美·유럽은 금리 내리는데...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줄속 정상화' 리스크"



- ▲ 中서 끊이지 않는 학폭 논란... "입에 다 훑고 쓰레기 집어넣고"
- ▲ 페루 대통령, '연봉보다 비싼 시계' 샀다가 검찰 조사 받



유통 수장들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  
SNS 챌린지 공개  
너



Life

CJ올리브영  
앱인앱 '헬스+' 출시  
웰니스 강화  
L2



# 서울시의회, 풍물시장 활성화 위해 빠른 환경정비·부지 확보 등 주문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85건 접수  
풍물시장 보수공사 등 시설물 점검  
노동자복지관 점유단체 관리 지시

서울시의회가 풍물시장 시설물을 제대로 점검하고, 노동자복지관 점유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서울시에 지시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총 85건을 접수해 39건에 대한 조치를 끝냈고, 39건은 추진 중이다. 나머지 7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풍물시장 불법 임의증축에 대한 철거기간 동안 상인들이 영업중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이 바랍직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맞게 조치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시는 영업중지 기간 개별 점

포를 대상으로 한 손실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감에서 시의회는 풍물시장 보수공사 완료 시기가 연기된 문제도 지적했다. 시는 올 2월 초목동 방화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풍물시장 침체 극복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풍물시장이 도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시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교육청과 부지 교환 협의를 총 4회 진행했으나, 재산 가치가 유사한 부지가 없어 합의가 불발됐으며, 향후 교환이나 매입을 통한 시장 부지 확보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풍물시장 일대 노점 영업으로 인한 주차난·소음·통행 혼잡 문제와 관련해 시는 관할구청, 상인회와 협력, 이달부터 노점 단속 등 환경 정비를 시행하

기로 했다.

또 시의회는 노동자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시는 양대 노총 및 산하단체 중 일부가 퇴거를 완료했으며,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 퇴거한 단체에는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감에서 시의회는 노총의 노동자복지관 점유 관련 사안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지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닌 관리비 등을 내고 공간을 이용해왔고, 이미 나갈 계획을 갖고 공간을 알아보는 중이니 퇴거를 재촉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미퇴거 9개 단체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올 상반기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송파구 마천역 일대, 1650세대 아파트로

마천동 183 일대 신통기회 확정  
최고 39층 규모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 송파구 마천역 일대에 최고 39층, 16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마천동 183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마천동 183 일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라면서 "대상지 주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성내천 복원 등의 잠재력에 주목해 고품격 주거단지 건립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통근·통학 동선이 집중되는 마천초·마천역(2번 출구) 주변에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광장을 계획했다. 또 오는 2028년 복원 완료 예정인 성내천변에 수변 활성화 시설을 배치하는 등 지역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배치 계획안. /서울시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마련했다.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내년 개통 예정)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해 마천로변에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공지와 녹지,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 계획도 수립했다. 또 지역에 예정된 여러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최고 39층까지 건립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교육청 소식지, 전자책 플랫폼서 무료

'지금 서울 교육' 3월호부터 제곱 교보문고 등 4개 업체와 업무제휴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독서플랫폼인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 교보문고, 예스 24, 알라딘 등 4개 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지금 서울교육' 3월호부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전자책(e-book)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 서울교육'은 1999년 3월 창간호부터 제294호에 이르기까지 서울 교육 현장 모습과 주요 교육정책 정보를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소식지다. 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전자책(e-book)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앱북(app-boo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4개의 온라인 전자책 플랫폼에서 '지금 서울교육' 2024년 3월호부터 구독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매월 10일 책자 발간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제휴를 통해 더 많은 독자가 대형 전자책 플랫폼으로 쉽게 '지금 서울교육'을 볼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및 활용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확보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 우이신설 연장선, 일괄입찰로 완공 빨라진다



서울시, '턴키 방식' 추진  
완공 약 9개월 줄어든 것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경원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우이신설 연장선'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턴키 방식은 입찰시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보다 높은 기술력과 정밀시공이 가능하며 사업 일

정도 약 9개월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경원선) 방학역을 잇는 총연장 3.93km,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건설하는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이다. 총 42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우이신설선이 1호선 방학역과 연결되면 서울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 파주시, 놀이시설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원 등 700곳, 스마트폰으로 안전 확인

파주시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약 700곳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어린이놀이시설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현황을 스마트

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는 어린이 생활안전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단지, 공원, 어린이집 등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섰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월 종이로 작성하는 안전 점검대장을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손쉽게 입

력할 수 있고, 관리·감독기관은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위해 요소 확인이 누락되거나 관리시기를 놓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안내판에 부착된 정보 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놀이기구 안전검사 현황 ▲보험 가입 현황 ▲기구별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 안전정보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3월 21일 (木)  
음력 : 2월 12일

수도권 날씨  
0 ~ 1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4/11, 동두천 -3/11, 가평 -3/11, 파주 -4/11, 서울 0/11, 양평 -2/11, 인천 1/9, 수원 1/10, 용인 1/10, 평택 -2/11, 백령도 3/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이강인, 7000만원대 시계 착용하고 환한 미소로 귀국 /사진 뉴시스  
▲축구대표팀 새 유니폼에 누리꾼 "소고기와 상추쌈" 시골

▲햄스트링 부상 이정후, 또 시범경기 선발 라인업 제외  
▲손흥민과 이강인, 합작골 나올까...21일 태국과 월드컵 예선 /사진 뉴시스



▲'세계선수권 2연속 메달 도전' 피겨이해인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잡음 끊이지 않았던 야구인생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시에는 바라는 게 있나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면 좋겠네!"

Q. 더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A. 그렇지! 하고 싶은 일 더 맘껏 하려고

성수동 '요가쌤'  
64세 최영아님

LG의 시와 바이오 기술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